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영역 비교 분석

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한결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영역 비교 분석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한결

# 인 준 서

임한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김 미 숙 (인)

심 사 위 원 김 명 숙 (인)

심 사 위 원 현 경 실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감상영역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악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교과서 속 국악 감상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국악 감상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악 감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감상영역의 변천을 알아보고 교과서 속 국악 감상영역에서의 장르별 곡의 분포도와 그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장르별로 가장 많이 다룬 국악 감상곡과 그 감상활동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의 총 감상영역 중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은 20%내외로 적었으나 6차 교육과정부터 그 비중이 평균 40%를 넘어 급격히 늘어났다.

둘째, 장르별로 살펴보면 아악과 민속악이 평균 11곡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창작국악은 평균 5곡으로 약 18%의 비중으로 소개되었다.

셋째, 교육과정별 국악 감상곡은 평균 27곡이 소개되었으며 가장 많은 곡을 실은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으로 총 55곡이고 1차 교육과정은 민속악 1곡으로 가장 적게 실렸다.

넷째, 감상과 관련된 활동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의 교육과정은 듣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들으면서 신체표현 하기, 곡의 주제선을 찾기, 시김새와 음색 구별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감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교과서의 색감이 다채로워

지면서 사진과 그림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감상을 하면서 연주 장면 등을 연상하기 쉬워졌다.

이처럼 국악 감상영역은 교육과정이 개정 될수록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고심하는 이 시기에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듣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국악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교과서의 변천	4
2.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출판사 종류	10
3.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감상의 내용변화	12
4. 선행 연구	15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1
1. 연구 대상	21
2. 연구 도구	22
3. 연구 방법	25
4. 연구 절차	27
IV.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30
1. 교과서별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	30
2. 장르에 따른 분류	32
1) 장르별 감상곡의 비중	32

2) 연주형태에 따른 국악감상 곡 수.....	34
(1) 아악.....	34
(2) 민속악.....	37
(3) 창작국악.....	40
3. 대표 곡의 국악 감상영역 감상활동 비교 분석.....	42
1) 아악.....	42
(1) 종묘제례악.....	42
(2) 현악영산회상.....	49
2) 민속악.....	55
3) 창작국악.....	63
 V. 결론 및 제언.....	 71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교육과정 별 중등 음악교과서의 주요 특징	9
<표 2>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목록	11
<표 3> 교육과정 속 국악감상교육 내용	12
<표 4> 연구 대상 교과서	21
<표 5> 장르 및 연주형태에 따른 분류	24
<표 6> 분석 기준 도서	25
<표 7> 출판사 별 감상영역 구성 쪽수	31
<표 8> 장르별 감상곡 수와 비율(%)	33
<표 9> 아악 연주형태 분류	36
<표 10> 민속악 연주형태 분류	39
<표 11> 창작국악 연주형태 분류	41
<표 12>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	44
<표 13> 종묘제례악의 감상 관련 활동	46
<표 14> 현악영산회상에 대한 설명	51
<표 15> 현악영산회상의 감상 관련 활동	53
<표 16> 민요에 대한 설명	59
<표 17> 경기민요의 감상 관련 활동	60
<표 18> 국악 관현악에 대한 설명	65
<표 19> 국악 관현악의 감상 관련 활동	66

## 그 립 목 차

[그림 1] 장르별 감상곡의 비율 .....	34
[그림 2]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의 종묘제례악 악보 .....	47
[그림 3]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의 종묘제례악의 절차 사진 .....	47
[그림 4]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종묘제례악 표와 그림 .....	48
[그림 5] 3차 교육과정 국민음악연구회 현악영산회상 설명과 악보 .....	54
[그림 6]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의 현악영산회상 악보 .....	54
[그림 7]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의 현악영산회상 감상활동과 악보 .....	55
[그림 8] 1차 교육과정 국민음악연구회의 경기민요 설명 .....	61
[그림 9] 5차 교육과정 학연사의 민요 설명과 악보 .....	61
[그림 10] 2007 개정 교육과정 태성의 민요 설명과 그림 및 악보 .....	62
[그림 11]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민요 설명 .....	62
[그림 12] 7차 교육과정 교학사의 국악 관현악 ‘송광복’ .....	67
[그림 13]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의 국악 관현악 .....	68
[그림 14]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국악 관현악 ‘축제’ 3악장 사진 ...	69
[그림 15]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국악 관현악 ‘축제’ 3악장 신체표현 .....	70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민족에게는 고유의 음악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후대에게 전했다. 뱃속에서의 태교음악, 어머니가 들려주는 자장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음악과 자신이 좋아해서 찾아 듣는 음악까지 우리는 늘 음악을 들으며 살아간다. 이처럼 음악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감상’이다.

국악은 오천년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현존하는 음악 유산이다. 세계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훌륭한 음악 유산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은 중요하다.<sup>1)</sup> 국악을 잘 이해하고 느끼려면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다. 귀명창이란 “판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한 애호가 수준을 넘어 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sup>2)</sup>이다.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은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이자 지침이며 교과서는 그 지침대로 잘 설계한 수업자료이다. 음악교과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국악곡이 교과서에 실렸고 감상과 가창, 기악 등의 영역에 다양한 국악 곡이 활용되

---

1)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 『국악교육론』, (파주 : 교육과학사, 2010), p.8.

2)

[http://folkency.nfm.go.kr/kr/topic/%EA%B7%80%EB%AA%85%EC%B0%BD/1198\(2018.06.10 검색\)](http://folkency.nfm.go.kr/kr/topic/%EA%B7%80%EB%AA%85%EC%B0%BD/1198(2018.06.10%20검색))

었다.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마지막 과정인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악감상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과 특징, 가치를 가르쳐 줌으로서 사회로 나아가 생활 속에서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국악 감상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RISS 검색<sup>3)</sup>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감상영역 관련 연구는 석·박사 논문 약 130여 편,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 7편이 있다. 석사 논문의 경우 6차 또는 7차,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하나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논문이 대부분이고 4차와 6차,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여러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또한 국악 감상영역만을 비교분석한 것보다 서양음악과 국악의 감상영역을 합하여 감상영역 전체를 비교분석한 것이 더 많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변천을 살펴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국악 감상영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악 감상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감상영역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악 감상교육의 중요성과 교과서 속 국악 감상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국악 감상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악감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

3)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A%B3%A0%EB%93%B1%ED%95%99%EA%B5%90+%EC%9D%8C%EC%95%85%EA%B5%90%EA%B3%BC%EC%84%9C+%EA%B5%AD%EC%95%85%EA%B0%90%EC%83%81&x=23&y=18\(2018.05.12 검색\)](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A%B3%A0%EB%93%B1%ED%95%99%EA%B5%90+%EC%9D%8C%EC%95%85%EA%B5%90%EA%B3%BC%EC%84%9C+%EA%B5%AD%EC%95%85%EA%B0%90%EC%83%81&x=23&y=18(2018.05.12 검색))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교과서 속 국악 감상영역에서의 장르별 곡의 분포도와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셋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장르별로 가장 많이 다룬 국악 감상곡은 무엇이고, 그 감상활동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속 국악 감상영역에서 감상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악곡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감상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결과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별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교육과정별 2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므로 각 교육과정에 따른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교과서의 변천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sup>4)</sup>과 『음악과 교재 연구』<sup>5)</sup>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제 1차 교육과정(1955년~1963년)의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교과서가 발행되었는데, 국정·검정을 정규 교과서로 하고 인정을 보조 교과서로 규정하였다. 교과서 내용의 특징은 생활중심의 단원학습으로 전개하고 소단원제에서 대단원제로 시정하여 학습 효과를 올리고 생활화를 꾀하였다. 주입식 방향에서 생활 경험에 의한 이해, 태도, 기능의 육성으로 전환하였고 흥미 중심의 작업단원을 많이 넣어 경험의 심화 확충을 꾀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1963년~1973년)에 중학교는 1965년, 고등학교는 1966년부터 각각 개편교과서를 사용하였다. 2차교육과정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을 받아들여 경험중심, 생활중심의 교육과정 시기로 교과서의 내용도 5.16 군사혁명의 정신을 부각시킨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해외교민을 위한 교과서가 편찬되었으며 부독본<sup>6)</sup> 성격을 가진 교과서의 간행이 많았으며, 반공 도덕 교육을 강조하였다.

음악교과 역시 교수요목기로부터 제 2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는 약 20~30여년의 기간 동안 교과서 개발의 기본방향은 진보주의 교육관을 따르며 생활 및 경험 중심적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1973년~1981년)의 교과서는 학문중심적인 교육과정의 정

4)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사이버상의 종합 역사관인 동시에 종합 자료관의 역할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5)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 『음악과 교재 연구』, (서울 : ㈜학지사, 2015), p.34-47.

6) 副讀本: 한 과목에서 주된 독본에 딸려서 보충적으로 쓰는 학습용 독본.

신을 크게 반영하였으며, 민족주체 의식의 확립에 유념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교과서 구분도 국정, 검인정제도에서 1종, 2종도서로 구분하였다. 예·체능과 실과 교과서가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이 높아졌다. 음악교과서는 학문 중심으로 전환된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교과의 구조화된 기본 개념을 강조하고 학문의 지식 체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편찬하였다. 또한 제 3차 교육과정까지는 범교과적으로 국민정신 교육이 계속 강조되었다. 이러한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방향에 따라 음악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에 기반 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가창·기악·창작·감상에서의 기초 능력을 강조하였다. 악곡 및 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가적 이념 등 당시의 시대·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고, 내용 체제의 통일성을 위하여 단원배열에 관한 방침을 세웠다.

제 4차 교육과정(1981년~1987년) 중·고등학교의 경우 1종 교과서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에 한정하고 나머지 교과는 모두 2종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미래지향, 인간중심의 교육과정 시기로 좋은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며 음악 교과서의 개발 방향 및 구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교과서의 단원은 학습 내용, 정리 및 적용, 확인 및 보충 혹은 단원명, 공부할 문제 등 제재곡 중심의 단원구성(악곡명-악보-학습목표-학습활동-정리)이 원칙화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 구성은 이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음악교과서의 내용은 이전에 비해 시대·사회적 요구에 따른 국민정신의 교육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음악 중심적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제 5차 교육과정(1987년~1992년) 교과서의 문장은 한글로 쓰되 표준말로 간결하고 평이하게 서술하고 개정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종 교과서를 확대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수준은 학생의 발달단계와 부합되게 하여 참고서가 없이도 대부분이 자율학습

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과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정보산업 교과가 신설되고, 과학고와 예술고가 제정되었다. 본 교육과정에는 중등 교과서에 1~3도 및 원색 혼용이 허용됨에 따라 흑백의 음영 조절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색을 활용한 삽화나 사진 등의 학습 자료가 보다 많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외형 체제의 모습은 제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1992년~1998년)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 보급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교육과정을 고수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나 학생들을 위한 교양 선택 과목의 개설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개선된 특징이다. 음악 교과서의 경우 편찬의 기본 방향이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주된 교육 자료’라는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참고서가 없이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강조하여 비디오, 오디오 등의 보완 자료가 처음으로 개발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 교과서는 실음을 강조하면서 학습에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가 풍부해지며 다양한 감상 곡 및 감상 활동 수록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음악 학습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1998년~2007년)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쉽고 재미있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의 구분은 2002년 6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재정립되었다.

한편, 1998년 2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정도서의 관리 업무가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위탁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급변하는 정보를 다루는 교과목이나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교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지정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자유스럽게 교재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음악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기존과 같지만 목표-활동-평가, 목표-활동-탐구 학습 등 다소의 개선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악곡 및 내용이 수록되었고, 학습자 관점에서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초·중등 모든 교과서가 사륙배판으로 확대되었고 활자의 규격이나 패턴 등이 자율화가 되었으며 중등의 경우 본문에 컬러(2~4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따라 책 중심의 교과서에서 벗어나 테이프, 전자교과서,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여러 형식의 보완 교재가 확산되어 인쇄된 악보나 사진, 삽화 자료와 더불어 실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학교에서의 음악 학습이 더욱 풍부해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선택과목을 일원화 하고 과목 균을 조정하였다. 본 교육과정부터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교과서 개발 방향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과서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음악 교과서 개발의 다양성 및 창의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음악에 대한 이해보다 활동이 강조되고 음악의 생활화가 중요한 내용 체계로 제시됨에 따라 직접적인 실생활과 접목된 악곡 및 내용 구성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제재곡 중심 구성에서 음악 학습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에 따라 제재곡별, 단원별, 주제별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보다 다양한 악곡과 활동이 포함되고 비디오, 멀티미디어,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을 강조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 발전하였다. 다만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학년

별로 각각 100쪽이라는 기준을 제시함과 같이 교과별로 기준 쪽수를 바탕으로 20%가감할 수 있다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했다. 교과서의 판형 및 지질과 전체 쪽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다양하고 선명한 학습 자료들의 많이 추가되고 음원도 확대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창의와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중이수제를 실시(중·고교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본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 개발의 큰 방향은 이전 교육과정기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교과서 개발을 둘러싼 전반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종이로 만든 교과서와 더불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여러 여건상 특정 교과에만 한정 개발되고 음악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교과서 편찬 제도에서는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따라 여러 종의 검·인정 체제로만 개발되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가 모두 인정도서로 편찬되어 다양성 및 창의성,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교과서 종수는 중학교 18종, 고등학교 10여종 이상에 이르렀다. 또한 기존의 학년별 교과서에서 초등3~4학년, 초등5~6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등의 네 가지 학년 군별 음악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교과서 안에 여러 학년의 학습 내용을 담게 되어 학습량과 전체 쪽수가 늘어났으며, 학년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 및 교수·학습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외적 체제에 있어서는 교과서 용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외형 체제가 완전 자율화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단원 및 체재 구성과 다양한 유형의 악곡과 창의적인 학습 활동 및 참신한 자료 수록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 <표 1>7)은 『음악과 교재 연구』 35쪽의 <표3-3>을 중등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으로 중등 음악교과서 특징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1> 교육과정 별 중등 음악교과서의 주요 특징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개발 방향 및 주요 특징	
1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중심 음악교육</li> <li>•음악의 기초 능력 강조</li> </ul>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곡 및 내용 구성 시 국민교육헌장, 조국 근대화 등의 사회적 요구 반영</li> </ul>
3차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색 갱신</li> <li>•흑백의 단색 구성 원칙</li> <li>•국판이 원칙이나 사륙판, 사륙배판 등 혼용</li> </ul>
4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곡 중심의 단원구성(악곡명-악보-학습목표-학습활동-정리)</li> <li>•보다 음악 중심적 내용 구성 가능</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색 구성, 책머리 원색 화보 추가</li> <li>•미색 갱신에서 중질지(서적지)로 변화</li> <li>•판형의 대형화(사륙배판)</li> </ul>
5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와 유사한 구성 유지</li> <li>•제재곡 중심의 단원 구성 유지</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도 및 원색 혼용 구성</li> <li>•판형(사륙배판) 유지</li> </ul>
6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li> <li>•실용 강조 학습</li> <li>•제재곡 중심의 단원 구성 유지</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도 및 원색 혼용 구성 유지</li> <li>•서책 외 비디오, 오디오 등의 교과서 보완 자료 도입</li> </ul>
7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음악교과서</li> <li>•음악 활동 강조</li> <li>•제재곡 중심의 단원 구성 유지</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도 구성으로 보다 화려한 색 구현 가능</li> <li>•서체의 규격과 패턴 자율화</li> <li>•비디오, 오디오, 멀티미디어 등 여러 형식의 교과서 보완 자료 확산</li> </ul>

7)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 『음악과 교재 연구』, (서울 : ㈜학지사, 2015), p.35-37.

07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교과서</li> <li>•음악의 생활화 강조</li> <li>•제재곡별, 주제별 등 다양한 내용 및 단원 구성</li> <li>•만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활용</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다양하고 선명한 색 모두 허용</li> <li>•편집 배열, 서체 및 디자인 자율화</li> </ul>
09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고,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교과서</li> <li>•다양성 및 창의성 강조로 인한 음악교과서 종수 확대</li> <li>•학년군별 음악교과서 개발</li> <li>•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단원 구성</li> <li>•다양한 유형의 악곡, 활동, 자료 수록</li> </ul>
	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 판형, 형태, 색도, 편집 등 용지를 제외한 외형 체제의 완전 자율화</li> </ul>

## 2.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출판사 종류

제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출판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목록이다. 미래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교과서박물관의 소장 목록<sup>8)</sup>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 출판 목록<sup>9)</sup>을 참고하여 중복된 것과 부족한 것을 새로 정리하였다. 다만 교육과정마다 출판사의 명칭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출판사 공식 홈페이지를 비교하여 그 출처를 찾았다. 그

8)

[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쉬운검색](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쉬운검색)(2018.04.26 검색)

9)

<http://www.kotry.kr/brd/NttView.do?bbsSe=B020&menuId=B020&upperMenuId=B001&searchType=&brdTemplate=1&selectedIdx=107429&searchCondition=2&searchKeyword=&searchTypeCode=&pageIndex=1>(2018.04.26 검색)

예로 대한교과서는 미래엔컬처를 거쳐 현재 (주)미래엔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며, (주)천재교과서는 (주)천재교육을 모기업으로 하는 출판사이다. 동아출판사는 두산동아에서 다시 동아출판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동아서적과 다른 출판사이다. 그 외 출판사는 없어지거나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교과서 출판을 하지 않았다.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출판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출판사 목록

교육과정	출판사 명
제1차	한국검인정교과서(주), 국민음악연구회, 예술교육출판사, 친우문화사, 음악교재연구회, 민중서관, 예술교육사, 새로이출판사, 국민음악회, 창인사 (총 10종)
제2차	동성문화사, 일진출판사, 국민음악연구회, 정음사, 대한교과서, 호악사, 일조각, 민중서관, 현대음악출판사, 경학사, 문교부 (총 11종)
제3차	정음사, 국민음악연구회, 일진출판사, 현대악보사, 대한교과서, 경학사, 동성문화사, 동아출판사, 양문사, 민중서관, 호악사, 교문사, 규문각, 학문사 (총 14종)
제4차	태림출판사, 삼화서적(주), 화학사, 고려서적(주), 교학사 (총 5종)
제5차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출판사, 동아서적, 학연사, 지학사, 동아출판사, 금성교과서(주) (총 7종)
제6차	동아출판사, 현대음악출판사, (주)보진재, 세광음악출판사, 지학사, 태림출판사, 도서출판 태성, 금성교과서(주), 동아서적, 학연사, 두산동아, 법문사 (총 12종)
제7차	대한교과서(주), 도서출판 태성, (주)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출판사, (주)교학사, 두산동아, 천재교육, 법문사 (총 9종)
2007 개정	(주)박영사, 태성출판사, 법문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주)교학사, 현대음악출판사, 세광음악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컬처 (총 10종)
2009 개정	경기도교육청(주)중앙교육,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주)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총 10종)
2015 개정	(주)금성출판사, (주)다락원,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주)천재교과서 (총 10종)

### 3.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감상의 내용변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10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성격과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4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상’이 나타나며 국악감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다음의 <표 3>은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sup>10)</sup> 속에서 국악 감상교육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표 3> 교육과정 속 국악감상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출처	내용
1차 (1955)	고등학교 사범학교	二. 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목표 3. 감상 라. 음악의 기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 및 서양음악의 음악사의 지식을 얻도록 한다. 마. 우리나라 음악과 각국의 민속 음악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한다. 三. 각 학년의 지도 목표와 그 내용 제 3학년 3. 감상 라. 민속 음악에 관련하여 국악, 동양 음악의 구성과 독자의 미, 연주 형태를 이해하고, 그 음악을 감상한다.
2차 (1963)	인문계 고등학교	I. 목 표 3.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음악을 역사적으로 감상 고찰하게 함으로써…일상생활을 더욱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한다. II. 음악 I (4) 감상 7) 악곡의 여러 종류 및 악기 편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 ㉓ 민요 15)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1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2018.04.26](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2018.04.26) 검색)

		<p>3. 지도상의 유의점</p> <p>8) 가창 및 감상 교재에 있어서는 되도록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다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Ⅲ. 음악Ⅱ</p> <p>(4) 감상</p> <p>7) 악곡의 여러 종류 및 악기 편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p> <p>㉓ 민요</p> <p>19)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p> <p>3. 지도상의 유의점</p> <p>9) 가창 및 감상 교재에 있어서는 되도록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다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3차 (1974)	인문계 고등학교	<p>라. 감상</p> <p>(1) 음악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파악한다.</p> <p>(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p> <p>(2) 음악의 종류와 연주 형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음악을 고루 감상한다.</p> <p>(마) 악곡의 여러 종류(행진곡, 춤곡, … 민요, 가곡 등) 및 악기 편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p> <p>(바)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감상</p> <p>(사) 독창, 독주, 합창, 중창, 합주, 중주(우리나라 음악 포함) 등 여러 연주 형태의 음악 감상</p> <p>(3) 인성과 악기의 음색 및 그 효과를 체감, 이해한다.</p> <p>(라)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이해</p> <p>3. 지도상의 유의점</p> <p>아. 가창 및 감상 교재에 있어서는 되도록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다루도록 유의한다.</p>
4차 (1981)	고등학교	<p>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p> <p>1) 지도</p> <p>나) 전통 음악을 각 영역의 학습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룬다. 리듬 학습의 소재로서 전통음악의 장단을 활용하는 일, 가창과 기악 학습에서 민요를 소재로 삼는 일 등, 모든 학습 활동 속에서 전통 음악의 소재를 다루도록 한다.</p>
5차 (1988)	고등학교	<p>나. 내용</p> <p>2) 감상</p> <p>(2) 악곡의 종류와 악기 편성 및 연주 형태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①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p> <p>③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음악을 감상하기</p> <p>④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감상하기</p> <p>(3) 인성, 악기의 음색과 그 배합에 따른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한다.</p> <p>③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p>
6차 (1992)	고등학교	<p>3. 내용</p> <p>가. 내용체계</p> <p>    감상영역</p> <p>        (5) 전통음악</p> <p>            • 창극, 오페라, 오라트리오를 포함한 성악곡</p> <p>            • 제례악, 줄풍류,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푸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p> <p>            •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p> <p>나. 내용</p> <p>    (3) 감상</p> <p>        (바) 창극, 오페라, 오라트리오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기</p> <p>            (사) 제례악, 줄풍류,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푸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p> <p>            (아)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p> <p>            (타) 우리나라 및 서양의 음악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기</p>
7차 (1997)	고등학교	<p>3. 내용</p> <p>가. 내용체계 - 이해 - 리듬 · 여러 가지 장단</p> <p>                    - 가락 · 민요 음계 · 시김새</p> <p>&lt;10학년&gt;</p> <p>(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p> <p>(라) 다양한 악곡을 듣는다.</p> <p>    ⑥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극,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p> <p>4.교수·학습 방법</p> <p>마. (4) 감상 학습은…중·고등학교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의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p> <p>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p>

2007 개정 (2007)	고등학교	3. 내용 다. 학교 급별 · 내용 영역별 지도 (2)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 (가) 활동 ⑤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상하도록 한다.
2009 개정 (2011)	고등학교	<음악과생활> 5. 교수·학습 방법 사. 국악, 서양 음악, 대중음악, 비서구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한다.
2015 개정 (2015)	고등학교	<음악>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4)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악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간보와 구음보 등을 활용한다.

#### 4. 선행 연구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영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국악교육과 국악 감상영역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현경실<sup>11)</sup>은 제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악내용의 변천을 연구하였다. 여기서 국악내용은 국악 감상과 이해, 기악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 연구 대상은 제 1차 1종, 제 2차와 3차 2종, 제 4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11) 현경실,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내용의 변천 연구』, (서울 : 음악교육연구 제 44권 제4호, 2014). pp.283-303.

는 각 3종의 교과서로 총 23권의 교과서이다. 교과서 분석의 기준은 첫째, ‘이해’와 ‘감상’은 영역별 독립적으로 다루어진 것만 분석하되 영역구분이 애매한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새로 구분하였다. 둘째, 악기에 대한 설명 및 연주방법의 소개만 있는 경우, ‘이해’의 악기론에 포함하였다. 셋째, 교과서별로 소개한 곡의 횟수를 계산할 때 페이지의 할애정도가 다르더라도 1회로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1차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등 각 영역에서 국악을 다룰 것을 명시하고, 지도 유의 사항에서도 국악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다룰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서양음악에 비해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둘째, 국악 이해영역에서는 국악사, 국악기, 분류, 음계, 장단의 순으로 많이 다루었으며, 기악 영역에서는 초기에 비해 악기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이루어지고 연습곡도 많아지며 이론에서 실기위주의 활동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국악의 이해와 감상 영역 모두 6차와 7차의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그 양과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곡의 다양성이나 횟수에서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규<sup>12)</sup>를 중심으로 4명의 연구진이 구성되어 국악 감상교육 체계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국악 감상교육에서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나 국악 감상 악곡 수를 늘리는 등 그동안 국악 감상교육에서 고민해 온 주제들을 모아서 하나의 ‘내용 체계 시안’을 제시한다. 감상교육의 의의와 더불어 국악 감상교육의 의의를 제고하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감상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악, 성악, 창작음악, 악·가·무에 따른 감상교육의 내용과 그 학습요소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악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그 내용에서 ‘현악영산회상 중 타령’, ‘수제천’, 관현악 합주 ‘취타(만파정식지곡)’, ‘시나위’, ‘청성곡’,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12) 이상규(2002), 『국악 감상 교육 체계화 연구』, (서울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기악·창작·감상 - IV). pp.3-46.

‘풍물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성악 감상교육의 내용에는 가곡 ‘태평가’, 가사 ‘백구사’, 사설시조 ‘어와 청춘 소년들아’, <춘향가> 중 ‘적성가’, 단가 ‘호남가’, 잡가 ‘바위타령’, 민요 ‘육자배기’ 등을 소개한다. 창작음악 감상교육의 내용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숲’, ‘침향무’ 등과 해금 협주곡 ‘방아타령’,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 성악곡 ‘승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래·춤·기악의 종합예술형태로서 종교의식이나 불교의식에서 사용한 음악을 따로 분류하여 악·가·무 감상교육의 내용으로 ‘종묘제례악’, ‘범패’, ‘무악(굿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내용에 따른 학습 요소를 통해 개별 영역의 특성과 학교 급별로 지도내용을 다시 고려하여 정리한다.

조유희<sup>13)</sup>는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가 단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07 개정 음악교과서 중에서 초등학교 8종, 중학교 16종, 고등학교 3종에 수록된 정악 감상 곡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에 수록된 정악 곡의 수를 살펴보고 그 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악 감상 곡의 수록은 많으나 그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초 국악이론에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경우 수록된 정악 곡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록곡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매우 적었다. 연구의 결과로서 국정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수록곡이 달라 다양해진 면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각 학년 별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출판사마다 정악 감상곡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악기 편성 등의 국악이론 오류를 지적하였다.

윤영애<sup>14)</sup>는 국악감상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고 나아가 선진 한국의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곧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관점에서 감상영역의 효율성을 제고해보려는 시도로서 연구의 목

13) 조유희,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정악 감상곡 비교연구』, (서울 : 국악교육 제 36집, 2013). pp.159-197.

14) 윤영애(2012), 박사학위 논문, ‘국악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상영역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적을 제시한다. 문헌연구와 교과서 검토,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찰연구의 방법으로 전개된다. 감상의 의의와 당위성을 제고하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속에 나타난 국악 감상 관련 내용의 양상을 문헌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 8종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감상 제재 곡을 정악·의식악·민속악·창작국악 등으로 구분하고 한국 음악사의 시대구분을 설정하였으며 연주형태에 따른 구분, 악곡의 설명의 유무, 기보법의 구분, 작곡자 유무 등 악곡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비교 하며 보완점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관련 내용들이 시기별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현장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교과서의 국악감상 관련 내용이 빈약하고 시청각자료의 획득이 어렵다는 점, 음악회의 체험 기회가 적었다는 점, 교사의 열의나 능력 등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교과서 수록내용의 경우 감상을 위한 제재곡이지만 설명 없이 악곡명만 수록되어 있거나 시대선정 오류 및 쓸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수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효율적인 국악 감상지도를 위해 ‘종묘제례악’의 교수·학습 지도안과 ICT 활용자료를 제작, 작성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설문을 통해 제시한다. 종묘제례악의 역사적 유래와 음악적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ICT 활용자료로 제례 절차에 따른 각 장면들을 음악과 함께 연결시켜 시청각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시영<sup>15)</sup>은 감상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및 차후 교과서 개편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먼저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음악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고찰한 후에 이상적인 음악교재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각 한 권씩을 비교, 분석하였다. 강원

15) 이시영(2007),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곡 비교 분석연구 : 제4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도 원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4차 교육과정의 고려서적출판사, 6차 교육과정의 두산동아, 7차 교육과정의 세광음악출판사를 선정하였다. 이때 5차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이 적어 제외하였다.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알아보고 4, 6, 7차 교육과정을 심화하여 분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교과서 분석은 감상영역을 편집부분과 내용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시각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편집 부분에서 감상영역에 할애된 쪽수나 사진 등의 자료를 분석, 분포도를 비교하였고 내용 부분에서 작곡가별, 장르별 등의 분석을 통해 각 교과서에 분포된 정도를 비교하였다. 전통음악의 경우 시대별, 장르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감상영역의 내용 및 오류를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그 결과 4차 교육과정보다 6, 7차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세련되고 정리가 잘 되었으며 오류 또한 훨씬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편집상의 오류가 아닌 작곡자의 성명과 같은 부분이 통일되지 않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조수진<sup>16)</sup>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10종의 국악 감상영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감상, 이해 영역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국악교육과 국악 감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교과서별 단원의 구성을 알아보고 국악감상 영역을 구분한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장르별,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감상 영역의 국악 곡 내용을 분석하고 그 중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전통음악 중 ‘종묘제례악’과 ‘수제천’, ‘여민락’, ‘가곡’ 등 8곡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만 창작음악 분석은 하지 않아 모든 국악 곡을 분석했다고 보기 힘들다. 음악사의 시대구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시대구분과 국립국악원의 통일안 시대구분과 비교하여 새로운 시대구분을 제시

16) 조수진(2014), 석사학위 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국악 감상 영역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한다. 더불어 교과서 속 국악영역의 오류를 조사, 정정하였다.

이용구<sup>17)</sup>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8종의 국악 감상영역 수록곡을 “초·중·고등학교 국악교육내용 통일안” 기준으로 다시 분류,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국악 감상수업에 활용될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 감상교육의 목표와 의의와 더불어 국악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역사적 배경 등을 조사하였다. 출판사별로 교과서에 수록된 곡의 수를 분석하고 그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은 ‘수제천’, ‘종묘제례악’ 등의 순으로 언급되어있고, 국악사 시대별 분석의 결과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근대음악이 45곡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근세음악이 1곡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국악사 시대구분은 국사 교육과정에서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장르별로 전통음악, 창작음악으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전통음악을 궁정음악(아악), 선비음악(정악), 민속음악(향토음악), 종교음악(불교음악, 무속음악)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니 전통음악은 54곡, 창작음악이 26곡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악 영역에 비해 감상 곡의 양이 적어보이긴 하지만 창작음악 영역이 역사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님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황병기 작곡의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와 전통음악 ‘수제천’, 이상규 작곡의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를 제재곡으로 한 지도방안을 작성하였다. 다만 지도방안은 실제 수업형태가 아닌 곡 분석과 수업 방향설정에 가깝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교육과정이나 3개 이하의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국악 감상영역의 흐름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이 처음 개발된 1950년대부터 2010년대인 현재까지의 고등학교 교과서 속 국악 감상영역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17) 이용구(2007),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 감상영역 지도방안 연구 : 8종 음악교과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교과서를 다 구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소장되어 있는 교과서 중 각 교육과정별 2종 씩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20종으로 교육과정별 교과서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 교과서

교육과정	출판사 명	교과서 명	저자 명	출판년도
1차	예술교육출판사	고등음악	김성태	1963
	국민음악연구회	고등음악교본	이강림	1963
2차	현대음악출판사	새음악 I	정희갑, 김성남	1968
	경학사	인문계고등학교 음악 I	손대업	1971
3차	국민음악연구회	인문계고등학교 음악	이병두, 조태희	1982
	교문사	인문계고등학교 음악	김성태, 이성만	1983
4차	고려서적주식회사	고등학교 음악	장창환	1984
	화학사	고등학교 음악	이상근, 이연도	1987
5차	동아출판사	고등학교 음악	정세문,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	1989
	학연사	고등학교 음악	최동선	1989
6차	현대음악출판사	고등학교 음악 I	신귀복, 강덕원	1996
	(주)보진재	고등학교 음악 I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	1996

7차	(주)교학사	고등학교 음악	정영택, 허화병	2003
	두산동아	고등학교 음악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003
07 개정	(주)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음악	양종모, 정태봉, 우광혁, 신현남, 김한순, 독고현	2011
	도서출판 태성	고등학교 음악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	2011
09 개정	현대음악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허화병, 전명찬, 유경수, 최진형, 주수진	2014
	(주)교학사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이홍수, 고영신, 김일영, 조경선, 강유경	2014
15 개정	(주)지학사	고등학교 음악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	2018
	(주)와이비엠	고등학교 음악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엄동식, 조아영	2018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국악 감상곡을 장르, 연주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최신 국악총론』(1985)과 『개정판 국악통론』(2009)은 장르를 크게 아악(雅樂), 의식음악, 가악(歌樂), 민속악으로 구분한다. 특히 『최신 국악총론』 265쪽에서는 아악을 다시 관현합주, 관악합주, 취타, 가악으로 나누고 또다시 관현합주를 향피리 중심의 음악과 거문고 중심의 음악(줄풍류), 기타로

세분한다. 관악합주는 향피리 중심의 음악(대풍류)와 당피리 중심의 음악으로, 취타는 대취타, 취타, 길군악·길타령으로 세분한다. 가악은 가곡, 시조, 가사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곡을 273~368쪽에서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다. 369~417쪽에서 의식음악을 제시하며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무악을 설명하고, 418~495쪽에서 가악을 제시하며 가곡, 가사, 시조를 설명한다. 496~534쪽에서 민속악을 제시하며 판소리, 시나위와 산조, 잡가, 민요, 농악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장르의 구분은 『최신 국악총론』을 참고하여 크게 아악, 민속악, 창작국악으로 나누었고 연주형태는 기악과 성악으로 구분하였다.

① 1930년대 말 이후 작곡가들에 의해 새로운 기법의 국악곡이 나타나면서 국악 관현악 곡, 창작가곡, 창작판소리 등의 창작국악이 활발하게 작곡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악의 경우 악기편성의 규모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여 관현악과 실내악, 독주, 중주 등으로 나누었다. 특히 관현악은 다시 일반적인 관현악과 협주곡 형태의 관현악, 합창 또는 구음 등의 성악과 함께한 관현악으로 세분하였다.

② 무용은 교과서에서 반주음악을 중심으로 감상영역에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행되는 장소와 반주음악을 기준으로 하여 궁중무용인 정재, 일무를 아악으로 민속무용인 탈춤, 승무 등을 민속악으로 구분하였다.

『최신 국악총론』에서는 각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국악 곡을 제시하였지만 다음의 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소개된 곡만을 제시한다. 장르와 연주형태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장르 및 연주형태에 따른 분류

장르	연주형태		곡
아악	악·가·무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무용		궁중무용 (정재, 일무)
	기악	관현합주	여민락, 현악영산회상, 천년만세, 평조회상
		관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수제천, 낙양춘, 보허자
		취타	대취타, 취타
		독주	청성자진한잎 <sup>18)</sup>
		병주	수룡음 등
	성악	가곡	남창가곡, 여창가곡
		가사	12가사
시조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민속악	악·가·무		범패
	무용		민속무용 (승무, 살풀이 등)
	기악	농악	풍물놀이, 영남
		시나위/무악	굿거리, 중모리, 당악, 옛모리장단 등
		산조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거문고산조
	성악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흥보가
		민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남도민요, 제주도민요, 향토민요
		잡가	선소리, 경기잡가, 휘모리잡가
	창작 국악	기악	관현악
실내악			국악 실내악
독주/중주			국악기 독주, 국악기와 서양악기 중주 등
성악		창작가곡/창작판소리	창작가곡, 창작판소리

18) 『최신 국악총론』에서는 관현합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합주보다 대금 또는 단소의 독주곡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장르 및 연주형태의 분석기준과 국악이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최신 국악총론』(1985)과 『개정판 국악통론』(2009) 등을 참고하여 보았다. 또한 감상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국악교육론』(2010) 등을 참고하였다. 이처럼 국악감상영역에 구성된 다양한 국악이론을 참고한 도서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분석 기준 도서

	참고자료	저자	발행처
단행본	개정판 국악통론(2009)	서한범	태림출판사
	최신 국악총론(1985)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국악용어 표준안(2010)		국립국악원
	국악교육론(2010)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	교육과학사
사전	국악대사전(1984)	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례에서 ‘감상’영역으로 구분된 국악 감상곡의 비교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례에서 구분된 감상영역이 없는 교과서의 경우 ‘감상’활동을 뽑아 분석하였다.

둘째, 교과서에 등장한 국악 감상곡을 장르, 연주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감상영역에서 장르나 연주형태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나열하며 설명하는 것은 제외하였고, 악보와 함께 제시된 감상곡이나 개념 설명 중 대표 곡 또는 예시 곡으로 곡 제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감상곡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악보가 없더라도 활동에

서 직접적으로 곡 제목을 들면서 “-를 감상해 보자.”라고 제시한 경우에는 감상 곡으로 포함하였다.

그 예로 한배에 따른 순서로 연주되는 영산회상과 산조 또는 의식순서에 따라 연주하는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 정대업과 범패, 그리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는 판소리는 구체적인 곡의 제목(장단)을 제시할 경우 감상곡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수제천이나 낙양춘, 여민락 등과 같은 단일 악곡의 경우에는 개념 설명에서 언급이 되면 포함하였다. 다만 시조, 가사 등의 경우 설명의 일부분으로 곡의 제목만을 열거할 경우 감상곡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교과서에서 국악 감상영역에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를 쪽수의 비율로 확인하여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쪽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쪽수는 표지와 속지 등을 제외한 차례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상영역의 쪽수는 차례에서 ‘감상’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서양음악, 국악, 대중음악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국악 감상영역의 쪽수는 감상영역 중 국악의 쪽수만을 계산한다.

③ 한 쪽을 기준으로 하되 감상 곡이 할애된 만큼 분할하여 절반 이상일 경우 1쪽, 절반일 경우 1/2(0.5)쪽, 절반 이하일 경우 1/4(0.25)쪽으로 계산한다.

넷째, 각 교과서마다 소개된 국악 감상곡을 아악, 민속악, 창작국악과 같이 장르별로 나누어 곡의 수를 계산한다. 하나의 교육과정에 따른 2종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를 교육과정별로 합산한다.

다섯째,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장르별로 가장 많이 등장한 국악 감상곡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감상활동 전개 방법과 관련 활동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 4. 연구 절차

교육과정 별 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살펴보기 위해 (주)미래엔 출판사에서 설립, 운영하는 미래엔 교과서박물관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필요한 교과서를 일부 복사하였다.

##### 1) 미래엔 교과서 박물관<sup>19)</sup>

미래엔 교과서박물관의 경우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까지 비교적 많은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 필요한 1차 교육과정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서 스마트전시관 중 교과서 자료관을 클릭한다.

② 좌측 배너 교과서검색을 클릭한다.

③ 교과서검색창<sup>20)</sup>에서 원하는 교과서를 검색한다.

④ 관외대출은 불가능하고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교과서명, 발행연도, 청구기호, 등록번호 등 검색한 자료를 정리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일로 보낸 뒤 전화로 방문예약을 한다.

⑤ 세종시에 위치한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1층 학예연구실로 가서 열람확인증에 서명을 하고 교과서를 열람한다. 사진촬영과 복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19)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152번지 미래엔 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bookmuseum.co.kr/>(2018.04.26 검색)

20)  
[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2018.04.27 검색)

## 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보관<sup>21)</su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보관은 5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가 구비되어 있어 본 연구에 필요한 5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를 열람하였다. 휴관일 외의 운영시간(평일 9시~17시) 내에 방문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교과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건물 4층에서 안내에 따라 방문록을 작성한 뒤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넣으면 교과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열람한 교과서 목록은 자료열람카드에 작성해야한다. 복사 비를 지불해야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서의 1/3이하만 복사가 가능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직접 구해서 보았고 앞서 열람한 교과서들을 한 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엑셀(Excel)에 감상 곡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 3) 교과서 분석 절차

① 각 교과서에서 감상영역과 국악 감상영역의 쪽수를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비율을 통해 알아본다.

② 엑셀을 이용하여 국악 감상곡 목록을 만든다.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여러 국악개론서를 참고하여 교육과정별 출판사, 장르, 연주형태, 상세구분, 곡 제목, 페이지, 악보의 유무, 성악곡 가사의 유무, 곡에 대한 설명, 곡에 따른 감상활동의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별, 교과서별로 감상 곡의 수를 정리한다. 단 곡의 수는 쪽에 할애된 정도와 무관하다.

③ 위에서 정리한 표를 활용하여 장르별로 가장 많이 실린 감상 곡을 하

---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B/D 5F (반포동 706-9), [http://www.textbook.ac/library/usingStatus.jsp?menu=3&sub=1\(2018.04.26 검색\)](http://www.textbook.ac/library/usingStatus.jsp?menu=3&sub=1(2018.04.26%20검색))

나씩 선별하여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다. 곡 제목과 악보 또는 사진(그림), 곡에 대한 설명, 특히 감상과 관련된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한다.

## IV.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

### 1. 교과서별 국악 감상영역의 비중

각 교과서에서 국악 감상영역에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비중을 살펴봄으로서 국악 감상영역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 실제 감상을 다루는 곡과 활동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악 감상영역 중에서도 활동이나 악보, 사진이 실려 있는 쪽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초기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몇몇 출판사 교과서는 이해영역인 국악사, 국악이론에 국악 감상곡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의 차례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별도의 감상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과서와 국악사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 또는 감상영역에 국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재곡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감상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다. 또한 한 쪽 전체를 감상에 할애하기도 하고 활동에서 감상을 조금씩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전 교육과정과 최근 교육과정에서의 차이는 아니고 출판사마다의 차이이다.

1차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평균 170쪽 정도의 두께로 구성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200쪽을 넘겼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줄어들었다. 각 교과서의 자체적인 구성에 따라 감상영역과 국악 감상영역의 쪽수가 상이하지만 비율로써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국악 감상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감상영역의 비율이 늘거나 줄어도 국악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아 감상영역 내에서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드물다.

1차 교육과정은 감상영역이 없거나 2쪽이 전부이고 2차 교육과정부터는 감상영역에 평균 15%정도까지 할애되면서 국악이 감상에서 조금씩 소개된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중이 다시 떨어졌으나 6차 교육과정부터 국악 감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감상 중 국악이 절반을 넘는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대음악이 유일하게 58%로 절반을 넘고 대부분은 평균 40%를 차지한다.

다음 <표 7>은 교과서의 전체 쪽수와 차례에 나타난 감상영역의 쪽수, 국악 감상영역의 쪽수를 비교한 표이다. 감상영역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쪽수에 대한 감상영역의 비율(%)이고, 국악 감상영역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감상영역에 대한 국악 감상영역의 비율(%)이다.

<표 7> 출판사 별 감상영역 구성 쪽수

교육과정	출판사	전체	감상영역(%) <sup>22)</sup>	국악감상영역(%) <sup>23)</sup>	비고
1	예술교육출판사	80	0(0)	0(0)	'감상'영역이 없다.
	국민음악연구회	80	2(3)	0.25(13)	
2	현대음악출판사	156	34.5(22)	7.25(21)	
	경학사	157	22.5(14)	2.5(11)	
3	국민음악연구회	156	16(10)	4.25(27)	
	교문사	154	24(16)	4(17)	
4	고려서적주식회사	143	3.5(2)	0(0)	'감상'영역이 있으나 국악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학사	158	21.5(14)	2.25(10)	
5	동아출판사	155	9.75(6)	2.25(23)	
	학연사	157	15.75(10)	4(25)	

6	현대음악출판사	176	27(15)	10.75(40)	'감상'영역과 '음악사와 감상'영역이 있어 두 영역을 함께 계산하였다. 두 영역 모두 국악이 포함되어 있다.
	(주)보진재	186	20.5(11)	7.25(35)	
7	교학사	176	23.5(13)	12.5(53)	
	두산동아 <sup>24)</sup>	176	17(10)	7(41)	'감상'을 중단원으로 음악사와 함께 구성하였다.
07	(주)금성출판사	191	9.75(5)	4.75(44)	'감상'을 중단원으로 음악사와 함께 구성하였다.
	도서출판 태성	186	41.25(22)	12.75(31)	'감상'영역이 없다. 활동에서 '감상'을 유도한다.
09	현대음악	287	22.5(8)	13(58)	'감상'을 중단원으로 음악사와 함께 구성하였다.
	(주)교학사	240	40(17)	16(40)	'감상'을 중단원으로 음악사와 함께 구성하였다.
15	(주)지학사	162	22(14)	4(18)	
	(주)와이비엠	160	37.25(23)	15.75(42)	

## 2. 장르에 따른 분류

### 1) 장르별 감상곡의 비중

아악, 민속악, 창작국악으로 크게 나누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장르의 곡수와 비율을 비교하였다.

22) 감상영역의 쪽수 / 전체쪽수

23) 국악감상영역의 쪽수 / 감상영역의 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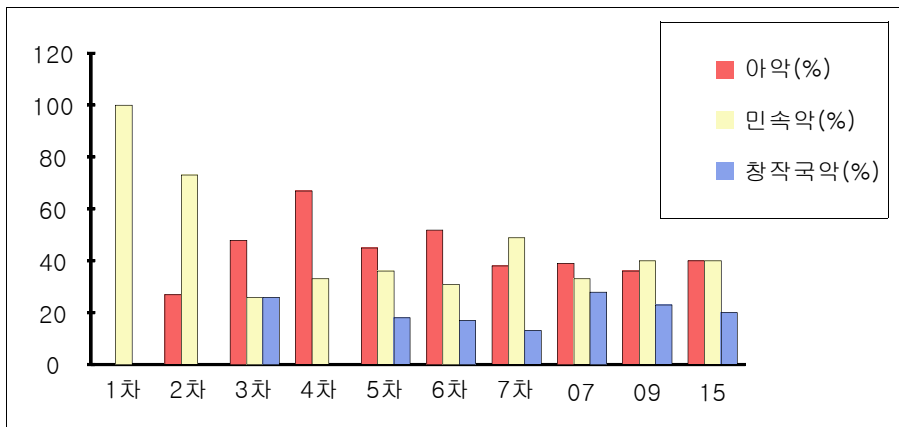
24) '통합학습'을 제외한 '영역 별 활동' 중 '감상'을 계산하였다.

아악과 민속악이 평균 11곡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창작국악은 평균 5곡으로 약 18%의 비중으로 소개되었다. 교육과정별 국악 감상곡은 평균 27곡이 소개되었으며 가장 많은 곡을 실은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으로 총 55곡이고 1차 교육과정은 민속악 1곡으로 가장 적게 실렸다.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까지는 민속악의 비중이 높고,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장르의 편중이 사라지고 비교적 고르게 소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 52곡의 국악 감상곡이 소개되었는데 아악과 민속악이 각각 40%, 창작국악이 2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은 각 교육과정에 따른 장르별 감상곡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은 각 교육과정에 따른 장르별 감상곡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장르별 감상곡 수와 비율(%)

교육과정 \ 장르	아악(%)	민속악(%)	창작국악(%)	합계(%)
1차	0 (0)	1 (100)	0 (0)	1 (100)
2차	4 (27)	11 (73)	0 (0)	15 (100)
3차	13 (48)	7 (26)	7 (26)	27 (100)
4차	2 (67)	1 (33)	0 (0)	3 (100)
5차	5 (45)	4 (36)	2 (18)	11 (99)
6차	25 (52)	15 (31)	8 (17)	48 (100)
7차	21 (38)	27 (49)	7 (13)	55 (100)
07	7 (39)	6 (33)	5 (28)	18 (100)
09	17 (36)	19 (40)	11 (23)	43 (99)
15	22 (40)	22 (40)	11 (20)	52 (100)
<b>평균</b>	<b>11.60 (42)</b>	<b>11.00 (40)</b>	<b>5.10 (18)</b>	<b>27.70 (100)</b>



[그림 1] 장르별 감상곡의 비율

## 2) 연주형태에 따른 국악감상 곡 수

교육과정별로 어떠한 곡이 얼마나 소개되었는지 보다 자세한 수치로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 속 국악 감상곡의 수를 계산한다.

### (1) 아악

총 117곡 중에서 악·가·무 13곡, 무용 15곡, 기악 67곡, 성악 22곡이 실렸다. 기악에서도 관현 합주 29곡, 관악 합주 19곡, 취타 10곡, 독주 5곡, 병주 4곡으로 관현 합주가 가장 많이 실렸다. 성악에서는 통칭 정가(가곡, 가사, 시조)가 20곡, 고려가요가 2곡 실렸다.

1차 교육과정에는 아악이 전혀 없고 2차 교육과정부터 실려 있다. 3차 교육과정부터는 아악이 13곡 제시되다가 4차에서는 ‘취타(만파정식지곡)’과 ‘종묘제례악’ 2곡만 감상곡으로 제시된다. 6차 교육과정부터 다시 수가 늘어나며 다양하게 구성되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종류가 한정되어 다양성 보다는 활동 위주의 감상으로 전개된다.

‘종묘제례악’은 2001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에 지정되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전기 음악사와 정간보 등의 이해영역과 연계하여 소개하고, ‘보태평’ 중 하나의 곡을 소개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제례의 절차에 따라 악기편성과 곡을 소개한다. 또한 초기에는 절차가 아닌 한 곡의 악보가 주로 실렸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악보 없이 절차에 따른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문묘제례악’은 3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 이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 ‘문묘제례악’ 중 교과서에 감상 곡으로 제시된 곡은 ‘황중궁’이 유일하다. 악보는 오선보로 12율의 가사와 함께 구성된다. ‘종묘제례악’보다는 교과서에 제시된 횡수가 적으나 초기인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관현악과 타악의 오선보 총보로 구성되어 감상 곡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주로 고려시대 음악사와 연계하여 감상곡을 구성하였다.

7차 교육과정부터 무용이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주로 반주음악을 중심으로 사진과 함께 다양한 전통무용을 소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에서 는 고려시대의 당악과 연계하여 당악정재인 ‘포구락’을 소개한다.

고려가요는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만 제시되었으나 ‘수제천’과 가곡은 6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개되고 특히 ‘수제천’은 연음형식을 연계하여 설명한다. ‘관악영산회상’의 경우 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후로는 보이지 않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 다시 보이고, 취타계열의 음악은 ‘대취타’가 3차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함께 3회 소개되고 7차 교육과정이 전까지는 ‘취타’와 한 번 씩 소개되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취타가 한 번 소개된 이후 보이지 않는다. 병주 역시 3차 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보였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소개되며 그 중 ‘수룡음’이 2번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평조회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현대음악에서 유일하게 ‘타령’이 피리보로 소개되었다. 3차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피리 중심 음악인 ‘낙양춘’과 ‘보허자’가 함께 소개된다.

가장 많이 소개된 곡은 ‘현악영산회상’으로 1차, 4차,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육과정에 실렸다. 가장 많은 아악을 수록한 교육과정은 6차, 2015 개정, 7차, 2009 개정, 3차 교육과정 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곡의 수는 적지만 오히려 더 다양한 악곡을 고르게 실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아악 곡은 ‘현악영산회상’, 무용, ‘종묘제례악’, ‘수제천’, 가곡, ‘여민락’ 순이다. 각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아악 곡의 수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아악 연주형태 분류

연주형태	교육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09	15	계	
	곡 명													
악·가·무	종묘제례악					1		2	1		2	3	9	
	문묘제례악				1			2				1	4	
무용	궁중무용								8		3	4	15	
기 악	관련 합주	여민락			1			2		1	2	2	8	
		현악영산회상		1	1			1	6	2		2	4	17
		천년만세								2		1		3
		평조회상										1		1
	관악 합주	관악영산회상		2								1	2	5
		수제천			1				2	2	1	1	2	9
		낙양춘							1			1		2
		보허자			1				1			1		3
	취타	대취타(구군악)			3		1	1	1			1		7
		취타(관련합주)			1	1				1				3
	독주	청성자진한잎			1		1	1			1	1		5
		병주			2							1	1	4

성 악	가곡				1			1	1	1	2	2	8	
	가사							2	3				5	
	시조			1			2	2		1		1	7	
	고려 가요	서경별곡							1					1
		풍입송							1					1
합 계			0	4	13	2	5	25	21	7	17	22	117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출판사 교과서에는 관악 합주인 수제천을 관현 합주로 소개하는 오류가 있다.

## (2) 민속악

총 110곡 중 악·가·무 7곡, 무용 8곡, 성악 61곡, 기악 34곡이 실렸다. 성악에서도 판소리 35곡, 민요 21곡, 잡가 5곡으로 판소리가 가장 많이 실렸다. 기악에서는 산조가 23곡, 시나위(무악) 6곡, 풍물놀이 5곡이 실렸다.

범패는 5차 교육과정까지 보이지 않다가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나타나고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된다. 6차 교육과정에서 걸차비 소리 중 ‘거불’, 훗소리 중 ‘할향’, 짓소리 중 ‘특사가지’와 같은 곡이 가사와 함께 한 줄 정도의 오선보로 제시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는 유일하게 범패 중 ‘화청’을 소개하면서 5줄 정도의 오선보를 실었고 관련된 활동에서 ‘화청’을 감상하면서 어울리는 장단을 찾아 손장단을 쳐 보도록 하는 적극적인 감상태도를 유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연주 사진이 함께 구성되어 감상에 도움을 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현대음악은 훗소리와 짓소리를 악보와 함께 소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현대음악은 춘앵전, 일무, 승무, 살풀이 등을 사진과 반주음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탈춤의 안무를

따라하는 신체활동과 연계하거나 다른 예술과의 통합으로서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무용의 종류와 그 반주음악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민요는 우리나라 지도와 함께 지역별로 소개되는 것이 대부분 교과서의 구성이다. 대부분 악보 없이 지역적 특징만을 소개한다. 1차 교육과정에는 경기민요만 소개되어 있지만 3차 교육과정부터는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지역의 민요가 소개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민요가 가창활동이나 기악활동에서 주로 제시되면서 오히려 감상활동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통속민요만 소개했던 초기의 교육과정들과 달리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향토민요가 소개되면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산조 역시 가야금산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대금산조나 거문고산조와 같은 다양한 악기의 산조가 소개된다. 가야금산조에는 박상근류가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2차, 3차, 6차, 7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개되었으며 산조의 한배에 따른 형식을 이해하기 쉽게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를 모두 소개하거나 가야금산조의 특징적인 장단인 휘모리만 소개한 교과서가 있다. 다만 2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유파에 대한 소개 없이 ‘가야금산조’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유파의 표기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출판사에서 같은 유파임에도 불구하고 조가 서로 다른 악보로 소개되어 있다. 가창 악보의 경우 합창으로 편곡 되거나 학생들의 음역에 맞추어 편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박상근류와 더불어 3차 교육과정에서는 김병호류, 7차 교육과정에는 김죽파류가 함께 실려 있다.

관소리는 민요와 달리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점점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춘향가>만 소개되었으나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 다섯 마당이 모두 보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설을 노래하는 관소리의 특성을 살려 악보보다는 곡이 나

타내는(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림이나 만화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춘향가> 중에는 ‘이별가’, ‘사랑가’가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초기에는 ‘이별가’만 소개되었다가 7차 교육과정부터는 ‘사랑가’가 함께 소개되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쑥대머리’, ‘어사출또’ 등 다양한 곡을 소개하고 있다. <심청가>는 <춘향가> 다음으로 많이 소개되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소개된 곡(대목)은 ‘범피중류’이다. 반면 <적벽가>는 가정 적게 소개되었다.

풍물놀이는 초기인 2차 교육과정부터 소개되고, 잡가와 단가는 6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연속해서 소개되다가 최근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민속악을 가장 많이 수록한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이고,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민속악은 민요, 가야금산조, 판소리 <춘향가> 순이다. 각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민속악 곡의 수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민속악 연주형태 분류

연주 형태	교육과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09	15	계
	곡 명												
악·가·무	범패							2		2	3		7
무용	민속무용								5		4	1	8
성 악	판 소 리	춘향가		2	1		1	1	3	1	1	3	13
		심청가					1	3	1			3	8
		적벽가							1			2	3
		흥보가							1			3	4
		수궁가							1			3	4
		단가							1	2			3
	민요		1	4	2	1	2	2	3	2	2	2	21
	잡가								1	3	1		5

기	풍물놀이		2	1			1		1			5	
	시나위/무악			1			2	1		2		6	
악	산 조	가야금산조		3	2		1	4		6		16	
		대금산조					1	1			4	6	
		거문고산조									1	1	
합 계			1	11	7	1	4	15	24	6	19	22	110

### (3) 창작국악

창작국악은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악 관현악의 경우에는 전통곡과 달리 지휘자가 있다는 점과 두드러지는 주제선율, 개량된 악기의 음색 차이 등에 유의하며 감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악곡을 편곡하여 관현악곡으로 연주하는 곡들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그대로 곡을 계산하였다.

총 50곡 중 기악 48곡, 성악 2곡이 실렸다. 기악에서도 관현악 29곡, 실내악 5곡, 독주 9곡 중주 4곡이 실렸다. 성악은 창작 가곡 1곡, 창작 판소리 1곡 총 2곡이 실렸다.

성악과 함께 한 국악 관현악에서 성악은 구음 또는 합창 등을 지칭하며 3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총 6번 교과서에 등장한다. 합창과 관현악은 3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에서 1번 씩 ‘가시리’가 연달아 소개되고 7차에서 ‘만수산드령춤’이 1번 소개된다. 구음과 관현악은 7차에서 ‘만선’, ‘신밧놀이’ 2곡이 소개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천부’가 유일하게 소개된다. 이처럼 4곡이 여러 교과서에 중복되어 실렸다.

협주곡은 5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제시된다. 협주곡 중 가장 많이 소개된 곡은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로 총 4번 소개되었다. 그 뒤를 이어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와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이

2번씩 소개되었다.

앞서 민속악의 가야금산조처럼 창작 독주곡에 있어서도 가야금 독주곡이 8곡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그 중에서도 황병기 작곡의 ‘침향무’가 가장 많이 소개된다. 거문고 독주곡은 정대석 작곡의 ‘일출’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유일하게 소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국악 실내악 팀과 창작 판소리를 소개하면서 퓨전국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감상 곡을 제시한다.

가장 많은 창작국악을 수록한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교과서에 가장 많이 실린 창작국악은 국악 관현악, 협주곡, 가야금 독주곡 순이다. 각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창작국악 곡의 수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창작국악 연주형태 분류

연주 형태	교육과정 곡 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07	09	15	계	
		기  악	관현악	국악 관현악			2			1	2		2
성악과 국악 관현악					1			1	3	1			6
협주곡							2	2	1	1	4	1	11
실내악	국악 실내악											5	5
	독주/ 중주		가야금 독주곡			4			2		1	1	
거문고 독주곡											1		1
국악기 중주곡								2				1	3
국악기와 서양악기 중주곡									1	1			2
성악	창작 가곡										1		1
	창작 판소리											1	1
합 계				7		2	8	7	5	11	11	50	

### 3. 대표 곡의 국악 감상영역 감상활동 비교 분석

교과서에서 국악 감상곡은 악보 또는 설명과 함께 감상곡만 제시되어 있거나 이해영역인 국악사와 연계하여 감상곡을 제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초기인 1차 교육과정부터 3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는 감상과 관련된 활동이 없다. 4차 교육과정부터 감상 곡에 따른 느낌을 말하기 등의 간단한 활동이 제시되어있고, 학생들의 감상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감상요점과 학습목표, 학습정리 등 감상과 관련된 활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이다.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감상영역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장르별로 가장 많이 실린 곡을 선정하여 감상에 따른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아악

##### (1) 종묘제례악

의식음악은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음악으로 음악과 노래, 무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다. 감상을 할 때에 음악만 들려주거나 가사만 보여주는 것 보다 악·가·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묘제례악은 4차, 6차, 7차,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소개되었으며 감상곡으로 가장 많이 소개된 곡은 ‘영신 보태평 희문’이다.

4차 교육과정 화학사 교과서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역사와 일무, 사용된 선법 등을 설명하면서 보태평 중 ‘희문’의 악보가 오선보로 3마디 정도 실려 있다. 교과서에서 곡 제목을 ‘희문’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히는 ‘영신 보태평 희문’<sup>25)</sup>이다. 이 악보에는 악장의 가사가 한글과 한문이 함께 있어 따라 불

---

25) 종묘제례 중 영신례에서 부르는 희문으로 보태평 중 희문과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다르다.

러 볼 수도 있고 당피리, 해금, 대금 뿐 아니라 편종, 편경 등의 악보도 있어 각 악기의 연주 상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보진재 교과서에서는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이 한 페이지에 같이 구성되어 있어 설명이나 악보가 줄어들었다. 4차와 마찬가지로 ‘희문’이라는 제목의 오선보가 실려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히는 ‘영신 보태평 희문’이고 4차와 같은 국립 국악원의 악보로 3마디가 제시되지만 악장, 대금, 해금, 절고, 편종만으로 편집하여 4차보다 악보 상 악기편성의 수가 줄었다.

같은 교육과정의 현대음악출판사 교과서에서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전기의 음악사와 함께 구성되어 음악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감상 곡이다. 한 문단 정도의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과 보태평 중 ‘희문’ 정대엽 중 ‘영관’이 감상 곡으로 제시된다. 두 곡 모두 악장(노래)와 편종으로 구성된 2, 3마디 정도의 오선보가 실려 있다[그림 2].<sup>26)</sup> 또한 유일하게 보태평 11곡과 정대엽 11곡의 각 제목이 소개된다. 다만 희문은 ‘영신 보태평 희문’이고 영관 악보에서 가사가 ‘오황열성’이 아닌 ‘오유열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가사가 아니다. 이종숙의 논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sup>27)</sup>

7차 교육과정 교학사에서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은 음악의 사용처와 악장과 일무가 함께 행해진다는 설명만이 한 문장으로 매우 짧게 되어 있다. 사진이나 그림은 없고 악장(노래)의 악보가 3마디 반 정도 실려 있지만 어떤 곡인지 자세한 제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sup>28)</sup>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는 종묘제례악의 설명과 함께 종묘제례의 순서를 사진으로 제시한다[그림 3].<sup>29)</sup> 제사의 순서를 제시한 것은 좋으나 각 순

26) 신귀복, 강덕원(1996). *고등학교 음악 I*.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p103.

27) 이종숙(2002), 박사학위 논문, <時用舞譜>의 舞節 構造分析과 現行 宗廟佾舞의 비교 研究, 용인대학교

28) 연구자가 국립국악원 악보와 대조한 결과 ‘영신 보태평 희문’이다.

29) 이흥수, 고영신, 김일영, 조경선, 강유경(2014).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서울 : (주)교학사, p193.

서에 따른 곡 설명이 없으며 악기 연주장면이나 일무가 아닌 제사의 장면만을 보여주고 악보도 없어 교과서만으로는 음악적인 것을 유추하기 힘들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에서는 종묘제례악을 두 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일무를 실제 사진과 함께 문무와 무무 둘 다 보여주며 악·가·무에 대한 설명과 절차에 따른 악곡, 연주형태(주악의 위치), 일무를 표로 설명하여 알아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또한 ‘전폐 회문’의 악작과 악지를 정간보로 제시하며 등가와 헨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다만 ‘초헌 보태평 회문’과 ‘아헌 정대업 소무’를 비교 감상하도록 제시하면서 악보가 없고 악기편성의 차이 등 감상을 도울만한 설명이 없다.

같은 교육과정의 와이비엠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설명과 종묘제례악이 악·가·무의 종합임을 설명하지만 보태평과 정대업에 대한 설명이 없고 악보가 없다. 표 밑에는 등가와 헨가를 그림으로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연주형태(주악의 위치)와 악기편성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4].<sup>30)</sup>

이처럼 교육과정에 따라 종묘제례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는데 초기에는 악보가 실리고 설명이 비교적 긴데 반해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점점 설명이 짧아지거나 악보를 제시하지 않고 연주 사진이나 그림,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음 <표 12>는 각 교과서에서 종묘제례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

교육과정	출판사 명	악보	사진/그림	절차	개작시기	곡제목	악장	악기편성	일무
4	화학사	오선보			○		○		○
6	보진재	오선보			○		○		○

30)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엄동식, 조아영(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와이비엠, p157.

	현대음악출판사	오선보	사진		○	○		○	○
7	교학사	오선보					○		○
09	현대음악	오선보					○		○
	교학사		사진	○	○		○	○	○
15	지학사	정간보	사진	○			○		○
	와이비엠		그림	○				○	○

종묘제례악은 소개된 모든 교과서에서 감상활동이 제시된다. 4차 교육과정 화학사는 서양음악과 비교 감상을 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활동을 구성한다. 6차 교육과정 보진재는 ‘아름다움을 감지한다.’ 또는 ‘연상하며 감상한다.’와 같이 다소 애매하고 명시하기 어렵게 감상활동을 제시하며 7차 교육과정 교학사도 감상요점이 “-의 의미를 안다.”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는 절차를 사진으로 소개하며 제례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며 특히 악·가·무의 조화를 느끼도록 감상을 유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는 절차에 유의하며 감상하도록 구성하여 제례음악의 특징을 중점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은 첫 번째 감상활동으로 제시된 표 안에 절차에 따른 음악과 일부를 기입하는 활동이 있는데 표 안의 용어가 생소하고 설명도 없어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활동에서 설명이 부족한 보태평과 정대업의 내용을 표에 기입하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감상 관련 활동 역시 초기에는 느낌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제사의 절차와 일무, 음악과의 관계나 악기편성 등을 비교하며 듣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상을 유도한다.

다음 <표 13>은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종묘제례악 관련 감상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종묘제례악의 감상 관련 활동

교육 과정	출판사 명	감상 관련 활동
4	화학사	◦ 이 음악과 서양 음악의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음악을 비교하여 들어 보고, 그 느낌을 [비교]해 보자.
6	보진재	<b>【감상의 요점】</b> 1. 제례악을 이해하고, 관현악과 노래와 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지한다. 2.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음악의 작곡 등 위대한 업적을 연상하면서 감상한다.
	현대음악출판사	<b>【학습정리】</b> (나) 조선 시대 전기와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해 보자.
7	교학사	<b>【감상요점】</b> ◦ 우리나라의 전통 의식 음악을 감상하고, 의식 음악의 의미를 안다.
09	현대음악	◦ 활동 : 중요 무형 문화재 제 1호인 “종묘제례악”을 감상하고, 우리음악의 가치를 느껴보자.
	교학사	1.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면서 제례의 흐름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2. 악장(노래), 일무(춤), 악기 연주의 조화를 느끼면서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여 보자. 3. 종묘 제례악과 같이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의 쓰임과 가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여 보자.
15	지학사	2. 종묘 제례의 절차에 따른 악곡과 연주 형태(주악의 위치), 일무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감상해 보자. 4.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며, 이에 반영된 음악 사상을 탐색해 보자.
	와이비엠	◦ 종묘 제례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1.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고, 종묘 제례 의식을 알아보자.

• <종묘 제례악> 보태평 중 제1곡 「회문」

노래  
세 더 --- 계 - 아 - 후 -

편중

• <종묘 제례악> 정대업 중 제11곡 「영관」

노래  
오 - 유 - - - 여 - - - - - 조 -

편중

[그림 2]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의 종묘제례악 악보

1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면서 제례의 흐름과 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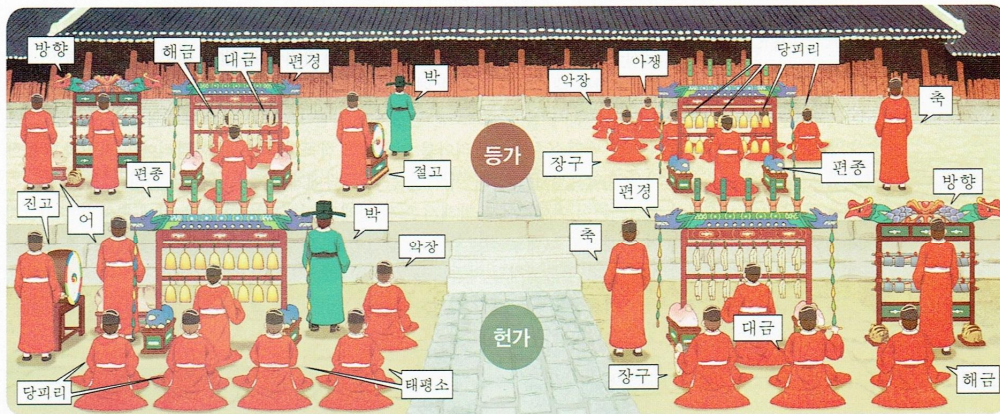


2 악장(노래), 일무(춤), 악기 연주의 조화를 느끼면서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여 보자.

[그림 3]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의 종묘제례악의 절차 사진

1 종묘 제례악을 감상하고, 종묘 제례 의식을 알아보자.

제례	영신 (신을 맞이함.)	전폐 (폐백을 올림.)	진찬 (음식을 올림.)	초헌 (첫 번째 술을 올림.)	아헌 (두 번째 술을 올림.)
음악	영신희문 (헌가 연주)	전폐희문 (등가 연주)	풍안지악 (헌가 연주)	보태평지악 (등가 연주)	정대업지악 (헌가 연주)
일무	보태평지무 (문무)	보태평지무 (문무)		보태평지무 (문무)	정대업지무 (무무)
제례	중헌 (세 번째 술을 올림.)	음복 (제사 후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마심.)	철변두 (제기를 거둠.)	송신 (신을 보냄.)	망료 (축문을 태움.)
음악	정대업지악 (헌가 연주)		응안지악 (등가 연주)	흥안지악 (헌가 연주)	
일무	정대업지무 (무무)				



2 종묘 제례악에서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차이를 악·가·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보태평	정대업
樂 악기 편성		
歌 노래 가사의 내용		
舞 춤의 특징		

[그림 4]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종묘제례악 표와 그림

## (2) 현악영산회상

현악영산회상은 2차, 3차, 5차, 6차, 7차,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소개되었으며 ‘상령산’과 ‘타령’이 각 5회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그 뒤를 이어 ‘세령산’과 ‘하현도드리’가 2회씩, ‘중령산’과 ‘군악’이 1회씩 소개되었다.

2차 교육과정 경학사 교과서에서는 감상 중 국악기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타령’을 감상 곡으로 소개하였다. ‘타령’의 가야금 선율이 8장단 정도 오선보로 실렸는데 영산회상에 대한 설명은 다른 페이지에 구성되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다.

3차 교육과정 국민음악연구회 교과서는 영산회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령산’을 감상 곡으로 소개한다. 악보는 대금 정간보로 대금 시김새와 정간보의 기보 형태를 잘 볼 수 있다. 다만 교과서에는 어떤 악기의 악보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다[그림 5].<sup>31)</sup>

5차 교육과정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타령’을 소개한다. 영산회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선보로 된 거문고 선율의 2장단을 보여준다. 아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차 교육과정 보진재 교과서에는 ‘상령산’이 소개된다. 악보는 단소, 대금, 피리, 양금, 가야금, 거문고가 오선보 총보로 반 장단(10박)만 제시되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의 첫째 장단 중 10박은 현악기(현재는 거문고)만 연주하기 때문에 단소, 대금, 피리의 악보 상 연주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같은 교육과정의 현대음악출판사는 ‘전통음악 감상’과 ‘우리나라 음악사와 감상’ 두 가지 형태의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영산회상은 두 곳 모두 나타난다. 전통음악 감상에서는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세령산’, ‘하현도

---

31) 이병두, 조태희(1982).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서울 : 국민음악연구회, p.148.

드리’, ‘타령’을 소개한다. 한 곡씩만을 소개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한배에 따른 형식을 알기 쉽게 감상 곡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악곡마다의 장단구성과 빠르기정도를 설명한다. 악보는 각 한 장단에서 두 장단을 오선보로 제시하며 상령산의 첫째 장단 중 10박은 양금 선율이고 이후는 모두 단소 선율이다[그림 6].<sup>32)</sup> 음악사와 관련하여 소개한 현악영산회상 중 군악을 감상 곡으로 소개한다. 영산회상의 유래와 변천과정, 그리고 군악에 대한 설명과 함께 2장단의 오선보가 제시되는데 어떤 악기의 선율인지는 나타나있지 않고 피리의 선율과 같아 피리보로 추정된다. 같은 페이지의 맨 밑에 참고 자료로 영산회상의 연주장면이 사진으로 제시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두 교과서 모두 ‘상령산’이 제시된다. 악보는 양금, 가야금, 거문고의 상령산 중 첫째 장단 중 6박 부분만을 오선보로 제시한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 대취타, 취타, 영산회상, 수제천이 하나로 묶여있어 영산회상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감상요점에서 연음형식을 소개하는데 이와 관련한 수제천과 더불어 관악영산회상의 ‘상령산’을 소개하였다면 연계성이 더 뚜렷하였을 것이다.

같은 교육과정의 두산동아는 ‘상령산’의 악보를 거문고 한 장단의 오선보로 제시한다.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유일하게 상령산의 연주상 특징(첫째 장단 10박은 거문고만 연주)을 설명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교과서에는 ‘타령’이 소개되어 있다. 한배에 따른 형식과 연관 지어 영산회상과 산조를 비교 설명하며 악보는 거문고보를 오선보와 육보로 4장단을 제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타령의 가락선 악보를 제시하여 현악영산회상과 관악영산회상, 평조회상의 피리의 변화를 눈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령산, 세령산, 타령의 장단을 제시하며 장단과 함께

---

32) 신귀복, 강덕원(1996). *고등학교 음악 I*.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p120.

감상하도록 하였다. 선율 악보는 없지만 장구보와 가락선 악보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감상을 돕는다[그림 7].<sup>33)</sup>

같은 교육과정의 와이비엠에서는 ‘하현도드리’를 소개한다. 교과서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거문고보이며 정간보에 율명과 더불어 육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하현도드리’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 페이지의 아래에 현악영산회상에 대한 짧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이처럼 현악영산회상은 비교적 악보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며 연주 사진은 많지 않다. 초기에는 타령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빠르기에 따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악보는 거문고보가 대부분이다. 정간보보다 오선보로 소개된 것이 더 많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은 정간보 보다는 오선보겠지만, 오선보로 바꿔 기보 할 때 시김새 등에 있어서 저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곡의 특징이나 악기별 시김새의 특징 등을 잘 알 수 있는 정간보로 소개하는 것이 국악감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몇몇 교과서에서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과 같이 『국악용어 표준안』의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과 맞지 않게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국악용어 표준안』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감안하여 보아야 한다.

다음 <표 14>는 교과서에서 현악영산회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현악영산회상에 대한 설명

교육과정	출판사 명	악보	사진/그림	유래(원곡)	변형곡	악기편성	곡제목	아명	특징(형식)
2	경학사	오선보							
3	국민음악연구회	정간보		○	○	○	○	○	○
5	동아출판사	오선보		○	○	○	○		○

33)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지학사, p96.

6	보진재	오선보		○	○	○	○	○	○
	현대음악출판사	오선보	사진	○	○	○	○	○	○
7	교학사	오선보			○				○
	두산동아	오선보			○	○	○		○
09	현대음악	오선보							
	교학사	오선보							○
15	지학사	가락선	사진	○	○		○		○
	와이비엠	정간보	사진	○	○				○

현악영산회상은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감상 관련 활동이 나타난다. 2차, 3차, 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 보진재, 7차 교육과정 교학사 교과서에는 감상활동이 없어 제외하고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 7차 교육과정 두산동아,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와 와이비엠 교과서의 감상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는 학습목표와 학습정리, 학습활동을 통하여 감상활동을 연계하며 구성하고, 7차 교육과정 두산동아의 감상 관련 활동은 전통 실내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도록 제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에서는 민속악인 산조와 비교하며 감상하도록 제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는 변형곡인 평조회상과 비교하여 감상하도록 제시한다. 반면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와이비엠은 곡 감상과 관련 된 활동은 없고 음악사와 연관 지어 감상하도록 구성한다.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는 한배에 따른 형식에 따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산회상의 특징을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 <표 15>는 각 교과서에 구성된 현악영산회상과 관련된 감상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현악영산회상의 감상 관련 활동

교육 과정	출판사 명	감상 관련 활동
6	현대음악출판사	<p><b>【학습목표】</b>                      (1)전통음악 중, &lt;영산회상&gt;의 구성을 이해한다.                      (2)&lt;영산회상&gt;의 각 악곡의 흐름과 빠르기의 변화를 이해하며 감상한다.</p> <p><b>【학습정리】</b>                      (가)&lt;영산회상&gt;의 빠르기 변화를 적어 보자.                      (나)악곡 별로 연주하는 장단의 변화를 찾아 적어 보자.</p> <p><b>【학습활동】</b>                      (2)조선 시대 후기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음악을 감상한다.</p>
7	두산동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악기로 편성된 전통 실내악의 특징을 파악하며 듣는다.</li> <li>◦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 연주 형태를 파악하며 듣는다.</li> </ul>
07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 : 조선후기 정악의 변화와 민속악의 발생에 대하여 이해하고 악곡을 감상한다.</li> </ul>
09	현대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 여러 연주 형태의 영산회상을 감상하고, 우리음악의 다양성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li> </ul>
	교학사	<p>1. '영산회상', '산조'의 악곡 구성, 연주 형태, 시김새 표현들을 살펴 보면서 감상하고, 정악과 민속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자.</p>
15	지학사	<p>1. '현악 영산회상'의 악곡 중 '상령산·세령산·타령'의 장단과 빠르기를 이해하며 감상해 보자.</p> <p>2. '현악 영산회상'에 사용되는 악기를 알아보자.</p> <p>3. '현악 영산회상·관악 영산회상·평조회상'의 '타령' 초장의 첫 번째 장단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p>
	와이비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시대의 음악을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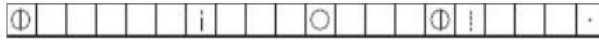


1 '현악 영산회상'의 악곡 중 '상령산·세령산·타령'의 장단과 빠르기를 이해하며 감상해 보자.

\* 풍류 음악

풍류(風流)란 속되지 않고 멋스러우며, 풍치가 있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풍류 음악은 이러한 풍류 정신이 음악으로 나타난 것으로 주로 양반층에서 교양으로 즐기던 음악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악 영산회상'과 '가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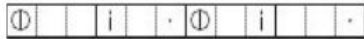
• 상령산: 20박(빠르기: 1분 30정간)



• 세령산: 10박(빠르기: 1분 45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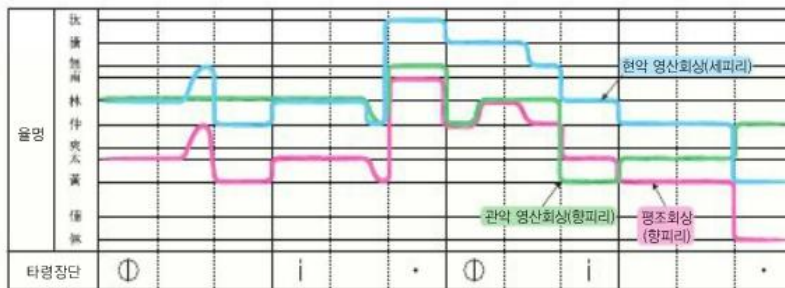


• 타령: 4박, 3소박 4개가 모여 이루어짐(빠르기: 1분 96정간)



2 '현악 영산회상'에 사용되는 악기를 알아보자.

3 '현악 영산회상·관악 영산회상·평조회상'의 '타령' 초장의 첫 번째 장단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 영산회상의 종류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 향피리 중심의 '관악 영산회상', 그리고 '현악 영산회상'을 4도 낮게 조율한 '평조회상' 세 종류가 있다.

[그림 7]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의 현악영산회상 감상활동과 악보

2) 민속악

민속악 중 민요는 국악 감상곡 중 유일하게 모든 교육과정에서 소개된다. 초기에는 세계민요를 중심으로 제시하거나 음계 또는 장단과 관련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지만 5차 교육과정부터는 한반도 지도 그림과 함께 지역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에 대한 설명 중에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으로 비애적인 선율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소개하며 '아리랑', '양산도', '도라지타령', '박연폭포'를 예로 들고[그림 8]<sup>34)</sup> 지역적인 특징은 설

명하지 않는다.

2차 교육과정 경학사에서는 작곡자가 뚜렷한 민요로 ‘노들강변’을 소개하며, 향악, 평조, 계면조 음계에 대한 설명에서 ‘양산도’와 ‘도라지타령’, ‘몽금포타령’과 ‘베를노래’, ‘아리랑’과 ‘박연폭포’를 예로 들고 있다. 지역적인 특징이 아닌 음계와 작곡자 등 이론적인 설명에서 예를 들 경우에 민요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민요의 음계에 대한 설명이 토리에 따라 분류하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같은 교육과정의 현대음악출판사 역시 민요의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감상을 유도하지 않고 ‘아리랑’, ‘도라지타령’, ‘양산도’는 세마치장단, ‘창부타령’, ‘천안삼거리’ 등은 굿거리장단과 같이 장단별로 민요를 구분하는데 주 활동은 민요 감상보다 장단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같은 페이지의 세계 민요를 감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민요로 ‘아리랑’을 소개하며 5음계의 애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3차 교육과정부터는 지역에 따라 민요를 소개한다. 국민음악연구회는 지역적인 특징을 경기민요, 서도민요, 강원도민요, 경상도민요, 함경도민요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민요를 제시할 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와 같이 전국 8도와 제주도로 나누어 소개한다. 그림은 없고 지역별로 대표 곡 한 곡의 악보가 2줄씩 제시되어 있지만 장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같은 교육과정의 교문사는 성악곡 분류 중에서 민요를 지역별로 소개하는데 전국 8도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곡 제목을 1곡에서 많게는 6곡 씩 나열하였다. 다만 지역적 특징에 대한 설명과 악보가 없다.

4차 교육과정의 화학사는 1차와 비슷하게 민족음악의 설명 중 세계 여러 나라 민요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요로 ‘아리랑’을 소개한다. 아리랑의 음계를

---

34) 이강림(1963). 고등 음악 교본1. 서울 : 국민음악연구회 p.20.

5음 음계(평조음계)라고 소개하지만 구성 음에 대한 설명은 없고 아리랑의 특징을 낭만적이라고 다소 주관적으로 설명한다.

5차 교육과정 학연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민요에 대한 설명과 한반도 지도 그림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징과 대표적인 민요를 3~4곡 씩 소개한다. 제주 민요는 대표 곡만 제시되었을 뿐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방아타령’, ‘천안삼거리’, ‘쾌지나칭칭나네’의 악보가 4장단 정도 오선보로 실려 있고 장단도 기재되어 있다[그림 9].<sup>35)</sup>

같은 교육과정의 동아출판사는 동양의 민요를 설명하며 ‘아리랑’ 전곡의 악보를 실었고 ‘아리랑’에 대한 설명은 없다.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에는 민요 감상을 3쪽에 걸쳐 소개한다. 민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지역별 음계와 시김새, 장단, 대표 곡에 대해 설명한다. 한반도 지도 그림과 함께 지역별 민요를 소개하며 장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차 교육과정 학연사는 감상과 같은 페이지에 구성된 이해영역에서 민요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음계는 경기민요와 남도민요만 제시되어 있다.

같은 교육과정의 두산동아는 서도민요의 특징, 음계, 종류를 설명한다. 다른 지역의 민요는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유일하게 공연장에서 민요를 부르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도서출판 태성은 교과서 가운데 그려져 있는 지도 그림을 중심으로 지역별 민요를 소개한다[그림 10].<sup>36)</sup> 지역과 주요 음계, 특징을 설명한다. 각 지역 별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남도민요 ‘강강술래’, 서도민요 ‘엮음수심가’, 동부민요 ‘경주 꽃노래’, 제주민요 ‘해녀가’의 악보가 실려 있다.

35) 최동선(198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학연사, p.30.

36)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2011).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도서출판 태성, pp.128-129.

2009 개정 교육과정 교학사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역별로 소개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역별 대표 곡의 악보를 짧게 실었으며 사용되는 장단을 각 악보의 기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학사는 경기민요 ‘창부타령’과 서도민요 ‘엮음수심가’를 감상하도록 구성하였다. 각각 2장단이 오선보로 실려 있고 악보의 상단에 장단이 기재되어 있다. 민요에 대한 설명이 본문이 아닌 교과서의 날개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지도 그림과 지역, 토리, 음악적 특징, 음계, 대표 곡을 소개하며 빈칸 채워 넣기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그림 11].<sup>37)</sup>

같은 교육과정의 와이비엠은 유일하게 ‘돈돌라리’를 소개하는데 ‘돈돌라리’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지역적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처럼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민요를 낭만적, 비애적과 같이 다소 애매하고 짧게 설명했다. 또한 지역을 9개의 도로 나누어 각 대표 곡을 제시하였으나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지역을 크게 5도권<sup>38)</sup>으로 나누어 음계(구성음), 시김새, 선율의 흐름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1차 교육과정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 같이 다른 나라의 민요와 우리나라 민요를 비교하며 소개하다가 5차 교육과정부터는 향토 민요와 통속 민요를 설명하고 지역별 음악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소개한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민요가 감상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감상 관련 활동도 다양하지 않다. 그림이나 사진은 지도가 대부분이고 연주사진은 드물다.

민요의 제목을 살펴보면 ‘노래가락’보다는 ‘노랫가락’이, ‘강강수월래’보다는 ‘강강술래’가 『국어용어 표준안』(2010)에 맞는 표현이다.

다음 <표 16>은 교과서에서 민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37)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지학사. pp.45-46.

38) 경기민요, 동부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제주민요

<표 16> 민요에 대한 설명

교육 과정	출판사 명	악보	사진/ 그림	지역	음계	장단	특징	구분 39)
1	국민음악연구회						○	
2	경학사				○			
	현대음악출판사				○	○		
3	국민음악연구회	오선보		○			○	
4	교문사			○				
	화학사				○		○	
5	학연사	오선보	그림	○		○	○	○
	동아출판사	오선보						
6	현대음악출판사	오선보	그림	○	○	○	○	○
7	교학사	오선보		○	○		○	
	두산동아	오선보	사진	○	○		○	
07	도서출판 태성	오선보	그림	○	○	○	○	
09	교학사	오선보		○		○	○	○
15	지학사	오선보	그림	○	○	○	○	
	와이비엠	오선보		○		○		

민요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소개되지만 감상활동과 연계된 교과서는 많지 않다. 2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는 장단을 중심으로 민요를 소개하기 때문에 감상활동 역시 장단을 쳐보면서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4차 교육과정은 ‘연구하자’와 같이 감상과는 연계성이 적어 보이는 활동을 제시한다. 5차 교육과정 학연사 교과서는 감상의 요점 3가지를 제시하며 다양한 방법의 감상활동을 유도한다. 6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적 특징을 체감하면서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향토민요와

39) 민요에는 향토민요와 통속민요가 있다.

통속민요를 비교하며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의 <표 17>은 각 교과서에 구성된 경기민요의 감상활동이다.

<표 17> 경기민요의 감상 관련 활동

교육 과정	출판사 명	감상 관련 활동
2	현대음악 출판사	◦ 위의 장단을 손수 쳐보고 서양음악의 리듬과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배운 민요의 박자와 장단에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4	화학사	◦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각국의 민요에 대하여 [연구]하자.
5	학연사	<b>【감상의 요점】</b> ◦ 통속 민요와 토속 민요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 조사하여 보자. ◦ 명창들이 부른 각 지방의 민요를 비교하며 들어 보고, 그 느낌을 말하여 보자. ◦ 각자 자기가 사는 고장의 민요를 찾아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알아보자.
6	현대음악 출판사	<b>【학습목표】</b> (1) 각 지방별 민요의 특징과 멋을 이해한다. (2) 각 지방별 민요를 감상하고, 각 지방별 민요의 특징과 멋을 체감한다. <b>【학습정리】</b> (가) 각 지방별 민요의 특징을 발표해 보자. (나) 각 도별 민요를 아는 대로 적어 보자.
07	도서출판 태성	1.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비교하여 들어보고, 음계와 시김새 등 음악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2. 여러 가지 민요를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하며, 그 특징을 느껴보자.
09	교학사	1. 향토 민요와 통속 민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발표하여 보자. 2.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감상하면서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여 보자. 3. 각 지역 민요의 음계와 시김새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감상하여 보자. 2.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하는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감상하여 보자. 3. 한배의 변화를 느끼면서 악곡을 감상하고, 한배에 따른 형식을 지닌 다른 국악곡을 찾아서 발표하여 보자.

15	지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토리의 시김새가 잘 나타나는 '창부타령'을 들어 보자.</li> <li>◦엮음 형식을 이해하고 '수심가'와 '엮음수심가'를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li> </ul>
	와이비엠	1.북한에서 무용을 하며 부르는 '돈돌라리'와 남한에서 부르는 '돈돌라리'를 동영상으로 감상하고, 느낌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감 상 I. 민요(民謠Folk song)

그 나라의 민족성과 잘 맞는 가락으로 오랜 세월 불려워 온 노래다. 각 나라에는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로 여러 개의 민요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민요는 멜로디가 유창하며 감상(感傷)적이다.

오오 나의 태양, 썬타루치아, 마리아 마리아 등

독이취탈트의 민요는 진절하버 서정적이다. 산과 나무, 들과 물 등에 관한 것이 많다. 로렐라이(Lorelei)는 특색 있는 곡이다.

프랑스의 민요는 이탈리아와 독이취탈트의 것을 절충한 특색이 있으며 가볍고 귀여운 노래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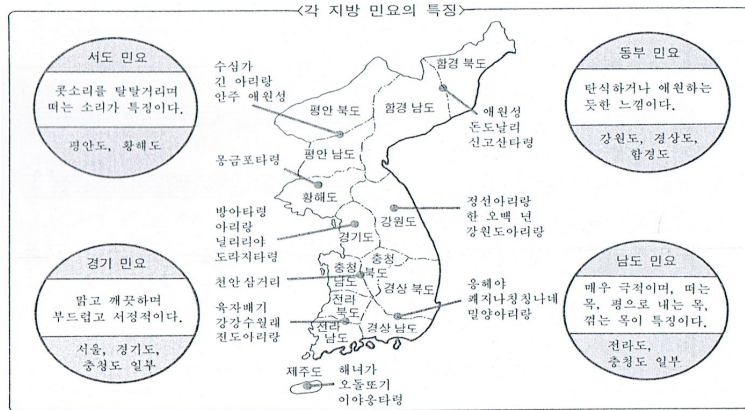
스페인의 민요는 동양적인 노래가 많고 특수한 리듬과 장식적인 진행이 많고 화려하며 춤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많다. 하바네라는 좋은 예다.

아일랜드에는 영국의 특수적인 민요를 가지고 있다. 한멀기, 장미꽃, 아 폭동아(Danny Boy) 등이 그 것이다.

미국의 민요로는 대부분이 흑인의 생활을 노래한 것이 많다. 포스터(Foster)가 작곡한 올드 블랙 죠(old Black Joe) 오 스산 나 등이 있다.

한국 민요는 우리 감정에서 나온 약간 비애적인 선율이 많다. 아리랑, 양산도, 박연폭포, 도라지타령 등이 있다.

[그림 8] 1차 교육과정 국민음악연구회의 경기민요 설명



세마치  $\text{♩} = 90$  경기 민요

방아타령

천안삼거리

캐지나칭칭나네

[그림 9] 5차 교육과정 학연사의 민요 설명과 악보



### 3) 창작국악

창작국악은 3차 교육과정부터 소개되었고 다양한 창작국악이 있지만 국악 관현악이 가장 많이 실렸다. 협주곡과 성악과 함께한 국악 관현악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악 관현악곡만 분석한다. 국악 관현악은 3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1~2곡씩 소개되었다.

3차 교육과정에는 창작국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표작품으로 김기수 작곡의 ‘송광복’과 이강덕 작곡의 ‘새하늘’을 소개한다. 다만 악보는 물론 곡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적극적인 감상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김기수 작곡의 ‘파봉선’을 근·현대의 음악사와 관련하여 소개한다. 감상 곡은 제 2악장으로 악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며 당적(소금) 선율의 2마디 악보가 실려 있다.

7차 교육과정 교학사에는 김기수 작곡의 ‘송광복’을 소개한다. 창작국악과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보 4마디가 실려 있다[그림 12].<sup>40)</sup>

같은 교육과정의 두산동아는 유병은 작곡의 ‘한’이라는 곡을 소개한다. 다만 심화 감상으로 구성되어 감상에 따른 활동과 악보가 없지만 악곡의 내용과 서주 부분과 1~3부에서 표현한 곡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금성에서는 3차와 비슷하게 근·현대의 국악사를 설명하면서 창작국악의 대표곡으로 김기수 작곡의 ‘송광복’과 ‘개천부’를 소개한다. 다만 악보와 곡에 대한 설명이 없고 활동 또한 감상과는 관련이 없다.

같은 교육과정의 도서출판 태성에서는 이준호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를 소개한다. 시작가락의 해금선율을 오선보 8마디로 제시하고 설명 또한 매우 간단히 되어 있다. 또한 국악 관현악 연주 사진이 있어 악기의 배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악보가 ‘축제’ 3악장의 시작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악기마다의 솔로가

40) 정영택, 허화병(2003).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교학사, p114.

변갈아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 설명은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대음악에서 ‘송광복’과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을 소개하는데 두 곡 모두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주제선율 4마디의 악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의 교육과정 지학사에서는 양방언 작곡의 ‘제주의 왕자’와 이경섭 작곡의 ‘방황’을 소개한다. ‘제주의 왕자’는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곡의 시작부분 선율 20마디를 보여준다. ‘방황’도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3주제의 선율 9마디를 보여준다. 두 곡 모두 태평소 가락이다. 각각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하거나 주제 가락을 파악하며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국악 관현악 연주 장면을 보여주는 두 장의 사진이 각 감상 곡과 함께 실려 있다.[그림 13].<sup>41)</sup>

같은 교육과정의 와이비엠은 이준호 작곡의 ‘축제’ 3악장을 소개한다. 곡에 대한 설명과 1주제와 2주제의 각 주제선율 2마디를 보여준다. 특히 창작국악의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곡의 흐름을 악기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곡의 특징을 설명하며 연주순서에 따라 악기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준다[그림 14].<sup>42)</sup> 보이지 않는 곡의 흐름을 사진으로 보여주어 듣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여러 악기들의 음색 차이를 쉽게 구별하도록 돕는다.

다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창작국악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드물어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쌓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현악 곡인데 총보가 아닌 주제선율만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통과는 또 다른 기법으로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것을 악보로 확인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있다.

이처럼 국악 관현악곡은 6번의 교육과정에서 총 13곡이 소개되었는데 김

---

41)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지학사, p.97.

42)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엄동식, 조아영(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와이비엠, p117.

기수 작곡의 ‘송광복’이 4회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축제’가 2회 소개되었다. 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곡 제목만을 나열한 설명에 불과했지만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연주 사진을 추가하여 실제 연주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다음 <표 18>은 각 교과서에서 국악 관현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표 18> 국악 관현악에 대한 설명

교육과정	출판사 명	악보	사진/그림	역사	곡 내용	작곡가	주제 선을	작곡 의도
3	교문사			○		○		
6	현대음악출판사	오선보		○	○	○	○	○
7	교학사	오선보			○	○	○	○
	두산동아				○	○		○
07	금성출판사		사진	○		○		
	도서출판 태성	오선보	사진		○	○		○
09	현대음악	오선보	사진		○	○	○	○
15	지학사	오선보	사진		○	○	○	○
	와이비엠	오선보	사진	○	○	○	○	○

국악 관현악은 총 6번의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등장하는데 감상활동이 제시되는 것은 6차 교육과정부터이다. 6차 교육과정 현대음악출판사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7차 교육과정 교학사에는 확인학습에서 ‘송광복’에 쓰인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있는데 악기에 따라 연주법과 소리의 특징, 그 밖의 음악적 특징을 기입하는 표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감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감상활동에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비교

하기, 곡의 주제선율을 중심으로 듣기, 곡의 분위기에 맞게 신체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에서는 감상과 관련하여 신체표현과 악기 음색 구별의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축제’라는 곡의 제목과 어울리도록 짝을 이루어 손뼉을 치는 등의 흥겨운 신체활동을 한다[그림 15].<sup>43)</sup>

다음 <표 19>는 각 교과서에 구성된 국악 관현악의 감상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국악 관현악의 감상 관련 활동

교육과정	출판사 명	감상 관련 활동
6	현대음악출판사	<b>【학습활동】</b> <b>2</b> 근대·현대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창작 국악 곡을 감상해 보자. <b>【학습정리】</b> (나) 새롭게 창작된 국악가요, 국악 동요, 국악 성가 등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해 보자.
7	교학사	<b>【감상요점】</b> ◦ 창작 국악을 감상하고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찾는다. <b>【확인학습】</b> ◦ <송광복>, <시계탑>에 쓰인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07	도서출판 태성	5. 한국 전통 음악의 소재를 사용한 창작곡을 찾아 들어 보고, 각 작품에 사용된 전통과 현대의 요소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 현대적 감각을 살린 음악에서도 전통적 요소가 계속 쓰이는 이유에 대하여 모둠별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보자.
09	현대음악	◦ 활동 : 처음으로 오선보를 사용하여 창작한 국악곡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상해보자. ◦ 활동 : 다양한 국악기의 특성과 음색에 유의하며 감상해보자.
15	지학사	◦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해 보자. ◦ 창작 국악 관현악곡의 주제 가락을 파악하며 감상해 보자.

43)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엄동식, 조아영(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와이비엠, p116.

	와이비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국악을 알아보고, 악기의 종류와 음색을 구별하며 감상할 수 있다.</li> <li>1. '축제'의 주제 선율에 맞추어 신체 표현을 하며, 흥겹게 제재곡을 감상해 보자.</li> <li>2. 여러 악기들의 음색의 차이를 구별하며 주선율 악기와 반주 악기의 어울림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li> <li>◦ 다양한 국악기의 음색과 선율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자.</li> </ul>
--	------	--

### 송광복

김기수 작곡

□ 경쾌하고 활기있게(黃.平) 조금 빠르게

The musical score is arrang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ncludes Sojeom, Daegum, Tongso, Piri, and Janggu. The second system includes Yanggeum, Gajageum, Geomungo, Haegum, and Ajeng. The score is written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major). The tempo is marked as 'Allegretto' (조금 빠르게). The instruments play a rhythmic and melodic accompaniment for the main theme.

[그림 12] 7차 교육과정 교학사의 국악 관현악 '송광복'



### 제주의 왕자

관현악

Prince of Jeju

● 양방언(1960~)

재일 교포 작곡가인 양방언이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국악기인 태평소 가락과 장구의 장단에 드럼, 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가 어우러져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준다.



▶ 태평소 가락



문화적 공동체 역량

🎵 국악기와 서양 악기의 어울림을 느끼며 감상해 보자.



### 방황

관현악

● 이경섭(1972~)

방황하는 현대인의 갈등 극복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국악 관현악곡이다. 전통적인 음악 요소와 대중음악 및 서양 음악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 3주제 태평소가 주제 가락을 이끌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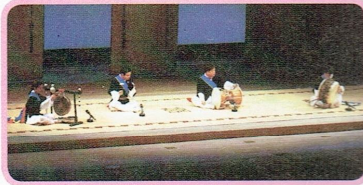


🎵 창작 국악 관현악곡의 주제 가락을 파악하며 감상해 보자.



[그림 13] 2015 개정 교육과정 지학사의 국악 관현악

2 여러 악기들의 음색의 차이를 구별하며 주선을 악기와 반주 악기의 어울림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사물놀이의 별달거리장단 연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모든 악기가 함께 서주부를 연주한다.



1주제 등장



팽과리의 신호를 시작으로 관현악 모두 함께 주제를 연주한다.

2주제 등장



북, 장구, 북, 팽과리 순서로 타악기가 독주하고, 관현악은 반주한다.

피리는 주선을 연주하고, 관현악은 주제를 반주한다.

대금, 소금이 주선을 연주하고, 관현악은 주제를 작게 반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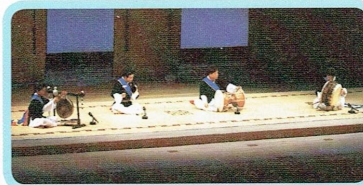


해금은 주선을 연주하고, 관현악은 2주제를 반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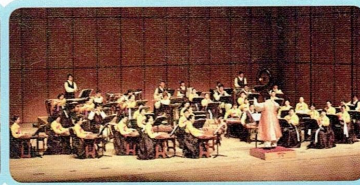


아쟁은 선율을 연주하고, 관현악은 2주제를 반주한다.

2주제가 연주되면서 피리가 갑자기 음을 높여 연주하고, 박자가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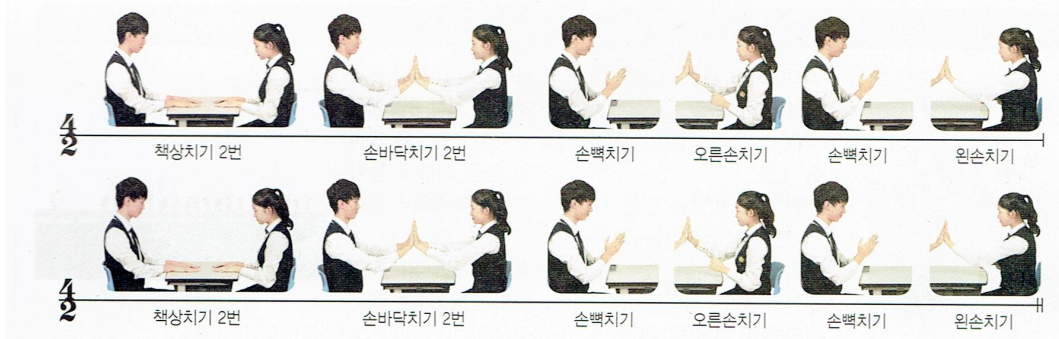
태평소의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관현악은 1주제를 빠르게 반복해서 연주하며, 모두 함께 축제의 끝부분을 장식한다.



사물놀이가 휘모리를 연주하고, 후반부에 태평소가 연주를 시작하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림 14]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국악 관현악 '축제' 3악장 사진

1 '축제'의 주제 선율에 맞추어 신체 표현을 하며, 흥겹게 제재곡을 감상해 보자.



[그림 15] 2015 개정 교육과정 와이비엠의 국악 관현악 '축제' 3악장 신체표현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별 2종의 교과서 총 20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악 감상영역에 수록된 국악 감상곡을 아악, 민속악, 창작국악으로 분류하고 이를 교육과정별 곡의 수나 감상 활동을 비교·분석하여 국악 감상영역의 변천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의 국악 감상영역은 감상영역 내에서 20%내외로 적었으나 6차 교육과정부터 40%를 넘어 급격히 늘어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학사가 18%로 가장 비중이 적고 다른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대부분 40%정도로 감상영역에서 국악감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다만 4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국악 감상영역과 이해영역의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4차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에서도 국악 감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실제 교과서에도 감상영역에서 국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상곡이 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아악 2곡, 민속악 1곡으로 총 3곡 밖에 없다. 5차 교육과정부터는 국악에서의 감상과 이해의 구분이 뚜렷해지면서 감상영역을 정비하여 감상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바뀌었다.

둘째, 장르별로 살펴보면 아악과 민속악이 평균 11곡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창작국악은 평균 5곡으로 약 18%의 비중으로 소개되었다. 국악 감상곡은 평균 27곡이 실렸는데 가장 많은 국악 감상곡이 소개된 교육과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총 55곡이다. 반면 가장 적은 국악 감상곡이 소개된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으로 1곡이다. 국악 감상곡의 장르별 비율을 가장 고르게 구성한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총 18곡 중 아악 7곡(39%), 민속악 6곡(33%), 창작국악 5곡(28%)이다. 가장 비율이 고르지 못한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으로 6차 교육과정은 총 48곡

중 아악 25곡(52%), 민속악 15곡(31%), 창작국악 8곡(17%)이며, 7차 교육과정은 아악 21곡(40%), 민속악 24곡(46%), 창작국악 7곡(13%)이다. 두 교육과정 모두 창작국악의 비중이 적었으며 6차 교육과정은 아악이, 7차 교육과정은 민속악이 더 많았다.

셋째, 1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서 제시된 국악 감상곡은 총 277곡이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아악이 117곡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었고 창작국악이 50곡으로 가장 적게 소개되었다. 각 장르에서 가장 많이 실린 곡은 ‘종묘제례악’ 중 ‘영신 보태평 희문’,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과 ‘타령’, 국악 관현악 중 ‘송광복’이다. 특히 민요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소개되었다. 반면 고려가요나 창작 성악곡 등은 한 번의 교육과정에서 소개된 이후 보이지 않는다.

넷째, 감상과 관련된 활동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초기의 교육과정은 듣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들으면서 신체표현 하기, 곡의 주제선을 찾기, 시김새와 음색 구별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감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또한 교과서의 색감이 다채로워지면서 사진과 그림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감상을 하면서 연주 장면 등을 연상하기 쉬워졌다.

이처럼 국악 감상영역은 교육과정이 개정 될수록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고심하는 이 시기에 그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듣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국악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립국악원(2002).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기악·창작·감상-』. 서울 :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2010). 『국악 용어 표준안』. 서울 : 국립국악원
- 권덕원, 황병훈, 송정희, 박주만(2010). 『국악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2015). 『음악과 교재 연구』. (서울 : (주)학지사).
- 서한범(2009). 『개정판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 송혜진(2010).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국악편)』. 서울 : 도서출판 두리미디어
-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장사훈(1985). 『최신 국악통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논문

- 윤영애(2012). 박사학위 논문. ‘국악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상영역 연구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 이상규(2002), 『국악 감상 교육 체계화 연구』, (서울 :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 -기악·창작·감상- IV). pp.3-46.
- 이시영(2007).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 곡 비교 분석연구 : 제4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이용구(2007). 석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 감상영역 지도방안 연구 : 8종 음악교과서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조수진(2014). 석사학위 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국악 감상영역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조유희.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정악 감상곡 비교연구』. (서울 : 국악교육 제 36집, 2013). pp.159-197.

현경실.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국악내용의 변천 연구』. (서울 : 음악교육연구 제44권 제4호, 2014). pp.283-303.

##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김성태(1963). 고등 음악. 서울 : 예술교육출판사.

이강림(1963). 고등 음악 교본1. 서울 : 국민음악연구회.

### 2차 교육과정

정희갑, 김성남(1968). 인문계 고등학교 새음악 I.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손대업(1971).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I. 서울 : 경학사.

### 3차 교육과정

이병두, 조태희(1982).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서울 : 국민음악연구회.

김성태, 이성만(1983).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서울 : 교문사.

### 4차교육과정

장창환(1984). 고등학교 음악. 서울 : 고려서적주식회사

이상근, 이연도(1987).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화학사

#### 5차 교육과정

최동선(198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학연사

정세문, 이홍수, 황병훈, 정미령(1989).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동아출판사

#### 6차 교육과정

정세문, 천기석, 김영희(1996). *고등학교 음악 I*. 서울 : 보진재

신귀복, 강덕원(1996). *고등학교 음악 I*.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7차 교육과정

정영택, 허화병(2003).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교학사.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2003).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두산동아

#### 2007 개정 교육과정

양종모, 신현남, 정태봉, 김한순, 독고현, 우광혁(2011).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금성출판사

주대창, 정은경, 홍수진, 최종철(2011). *고등학교 음악*. 서울 : 도서출판 태성

#### 2009 개정 교육과정

허화병, 전명찬, 유경수, 최진형, 주수진(2014).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서울 : 현대음악

이홍수, 고영신, 김일영, 조경선, 강유경(2014).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서울 : (주)교학사

2015 개정 교육과정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지학사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염동식, 조아영(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 (주)와이비엠

## 인터넷 자료

국립국악원 <http://www.gugak.go.kr/>(2018.05.17 검색)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kr/main>(2018.06.10 검색)

<http://folkency.nfm.go.kr/kr/topic/%EA%B7%80%EB%AA%85%EC%B0%BD/1198>(2018.06.10 검색)

<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A%B3%A0%EB%93%B1%ED%95%99%EA%B5%90+%EC%9D%8C%EC%95%85%EA%B5%90%EA%B3%BC%EC%84%9C+%EA%B5%AD%EC%95%85%EA%B0%90%EC%83%81&x=23&y=18>(2018.05.12 검색)

[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i/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취운](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i/global/docs/s_searchhtml.html?ssearchtype=취운) 검색(2018.04.26 검색)

<http://www.kotry.kr/brd/NttView.do?bbsSe=B020&menuId=B020&upperMenuId=B001&searchType=&brdTemplate=1&selectedIdx=107429&searchCondition=2&searchKeyword=&searchTypeCode=&pageIndex=1>(2018.04.26 검색)

<http://ncic.go.kr/mobile.dwn.ogf.inventoryList.do>(2018.04.26 검색)

<http://www.textbookmuseum.co.kr/>(2018.04.26 검색)

[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i/global/docs/s\\_searchhtml.html?](http://search.textbookmuseum.co.kr/volcanoi/global/docs/s_searchhtml.html?)

ssearchtype(2018.04.27 검색)

<http://www.textbook.ac/library/usingStatus.jsp?menu=3&sub=1>(2018.04.26  
검색)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n Appreciation Section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Highschool Music Textbook According to Changes in Educational Curricula

Lim - Han Kyol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is the section of appreciation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highschool textbook from the 1<sup>st</sup> Educational Curriculum to the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of 2015. The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appreciation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highschool and to examine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education for the appreciation, thereby identifying the change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The final goal is to make the appreciation education proper.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to delve into the variations in the appreciation o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highschool music textbook according to the different Educational Curricula, and to find out the contents and

distribution of different genres in the curricula as well as the most-frequently suggested pieces and the activities for appreciating thereof.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from the 1<sup>st</sup> Educational Curriculum to the 5<sup>th</sup> Educational Curriculum, the part for appreciation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took up approximately 20% in the total appreciation education, which was relatively a small percentage. This, however, rapidly increased to more than 40% on average after the 6<sup>th</sup> Educational Curriculum.

Second, in terms of genre, there were 11 pieces of classical court music and folk music on average, which was about 40%, while 5 pieces (app. 18%) were newly-created Korean traditional music.

Third, there were 27 pieces on avera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musical appreciation for different Educational Curricula. The Educational Curriculum with the most pieces was the 7<sup>th</sup> Curriculum, containing 55 pieces in total, while the 1<sup>st</sup> Curriculum included only 1 piece of folk music as the leas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activities for appreciating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ere becoming more various. In the earlier Curricula, the activities merely focused on listening to the music and expressing opinions thereon. Lately, however, the trend includes various activities such as expressing with bodily language, finding the subject melodies, and discriminating Sigimsae (시김새): an ornament or a grace note that comes before or after a certain note) and tone, thus inducing a more active appreciation of the music. Also, as the color tones in textbooks became more various with the help of diverse pictures, it became easier for students to stimulate associations as to the scene of musical

performance.

As mentioned above, it can be found that the section of the appreciation on Korean traditional music made quite an improvement in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These days, with concerns involving the various methods to familiarize Korean traditional music, sharing how to properly listen to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will make way for the students to naturally be used to it.